2024년 1월 19일 [12.9] 금요일

한과정보

기준환율	팔때
₩1,338.50	Q7.64
송 금 시	살때
₩1,325.60	Q8.02

대사관 : 2382-4051~55 / embcor.gt@mofa.go.kr / 긴급:3368-9333 / 한인회:2445-6461

국회, 헌법재판소 명령 따라 오늘 의장단 재선출

17일, 헌법재판소의 국회 의장단 재선출 명령에 대해 국회 의장으로 선출된 Semilla당의 Samuel Pérez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패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Allan Rodríguez(전직 국회의장)과 Sandra Jovel(Valor당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Samuel Pérez의원은 Semilla당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장단 재선출을 막기 위한 법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회는 1-2024 합의에 따라 19일(금) 의장단 재선출 과정을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6페이지에서 계속〉

새로운 소식

서울 나염 구인광고 (17 페이지 참조)
LG 한국인기가전 판매 (13 페이지 참조)

Óptica Exprés
① Boulevard Los Próceres
16 Av. Esquina 17-62 Zona10
② Blvrd. Principal San Cristóbal Plaza
Futeca, Local 13 Sector B-1, Z.8 Mixco
③ Eskala Roozevelt
Calzada Mateo Flores Z.2 mixco
2258-9667, 2250-6419
Ópticaexprés

eclipse & mariposa
1F Restaurante
BAR
가족노래방
2F Karaoke
36 av 0-37 Zona 7 Col. Toledo
전화번호변경
tel. 5633-1949



유명한 집

매주 화요일 쉽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MENU

- 떡만두국
- 떡국
- 닭똥집 볶음
- 오리훈제구이
- 생삼겹살
- 닭도리탕
- 부대찌개
- 오리주물럭
- 오리탕전골
- 삼계백숙
- 도가니 수육
- 소모듬 수육
- 수육전골
- 매운 등뼈찜
- 매운 꼬리찜
- 뼈없는 닭갈비
- 감자탕 전골
- 콩나물해장국

2시간전 예약

- 등갈비 김치찜
- 한방 굴보쌈
- 한방 토종닭
- 한방오리수육

MENU

- 고등어조림
- 갈치조림
- 콩국수
- 잡채밥
- 육계장
- 뚝배기불고기
- 된장찌개
- 오징어볶음
- 제육볶음
- 김치찌개
- 순두부찌개
- 우거지 갈비탕
- 도가니탕
- 꼬리곰탕
- 흑마늘 삼계탕
- 들께 삼계탕
- 삼계탕
- 오리탕 뚝배기
- 감자탕 뚝배기
- 설렁탕
- 월남국수
- 메밀소바
- 국물떡볶이





1Calle 35-09 Zona 7 Col. Toledo / 2433-9788, 4646-1119

한·중식 전문

명동

한식



중식





고기



주소 : 11 calle 5-08 Zona 9
오영일팔-일일칠육/이삼삼일-삼사일사/이사사일-오이육육

배달은 PedidosYa 를 이용해 주세요

100% 한국산

Jin 진라면 Ramen

진라면 선물상자 주문하세요!

NEW



A

봉지라면14+작은컵6



B

봉지라면12+큰컵2+작은컵3



C

봉지라면8+작은컵6



D

봉지라면6+큰컵2+작은컵3



E

봉지라면 10



봉지라면 (20개/상자)
순한맛 · 매운맛



큰 컵라면 (12개/상자)
순한맛 · 매운맛



작은 컵라면 (6개/상자)
순한맛 · 매운맛

주문 문의 Tel. 3997-8720 Gloria Lee

배달합니다!



2024 제2기
제일교회 토요공부방

모집기간

24. 01. 15(일) ~ 02. 16(토) (각반별 선착순 10명씩)

일시/장소

-24. 02. 17(토)~ 05.04(토)
-매주 토요일 총 10주간 , 오전9시30분~12시
-과테말라 제일교회(ZONA 9)

등록비

-등록비 : Q200(1인)
*단, 한 가정당 셋째 자녀 부터는 등록비 면제.
-한글반/수학반은 수업료 무료
-악기반만 별도의 수업료 발생

참고 사항

-점심식사 무료 제공합니다.
-일부지역 차량운행 지원가능합니다.
-보조교사로 봉사활동 지원가능(봉사활동 확인서 가능)

한글반

- 기초반/심화반 으로 구성, 한글을 배우기 원하는 유아~초등학생 대상
- 1교시(9:30~11:00) 수준별 한글수업 진행
- 2교시(11:00~12:00) 동요 및 만들기 수업 진행

수학반

-1교시(9:30~11:00)
1,2차함수 및 삼각함수 학습 (고등 과정 추천)
-2교시(11:00~12:00)
1차 함수에 대해 집중 학습 (중등 과정 추천)

***별도 악기반**

-드럼반, 기타반, 일렉기타반, 베이스기타반 등등
(각 반별 선착순 5명씩 모집)
-외부강사 초청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수업료 발생
-수업료 50%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정규수업 이후 별도의 시간 동안 따로 레슨합니다.

문의 및 신청

이진이 전도사(전화: 3025-6215, 카톡 아이디: jini3545)

과테말라제일교회
Iglesia Cheil Guatemala

햅번샵

◈ 꽃 바구니, 꽃 다발, 근조화환
(한국에서 들여온 자재로 만들어 드립니다.)
◈ 한국 의류, 신발, 가방, 화장품
◈ 그외 인테리어 소품, 그릇, 꽃
◈ 2층 cafe - 커피, 팥빙수, 간단한 식사

한국 차렵이불
한정수량판매 Q650



www.milescolores.com

딱 맞는 부자재는 없을 수 있어도
대체할 수 있는 부자재는 엄청나게 많은 곳

단추 염색합니다.. Tenir Boton
싸개단추 만듭니다.. Boton Forrado
Boton(Plastic, Forrado, Teñir, etc)
Zipper(Nylon, Metal, Tiburon, etc)
Ring & Slider, Adjuster(Metal, Plastic)
Elastic, Poly Bag, Tag Pin, Twill Tape, Liston
Velcro, Cordon(Redondo, Tublar) Sellador, Encaje
Hilo(Poly Spun, Texturizado, Algodon, Metal, Invisible, etc)
Entretela(Fusible, Tricot, Hot-Melt Fusible, Fusible Tape, etc)

3686-0084



공 장 : 6a Av. 2-69, Zona 2 de Mixco, Col. El Tesoro Tel: 2316-7447
Local : 3 calle 14-87, Zona 3 de Mixco, Col. Nueva Monserrat Tel: 2433-3900
❖ 약도는 사이트나 QR코드를 찍으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amuel Pérez 의원을 비롯한 Semilla당 의원들은 국회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되었다.

Samuel Pérez 의원은 "우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100명을 넘고 있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던 UNE당의 Adim Maldonado 위원과 Raúl Solórzano 의원도 의장단 재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UNE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Adim Maldonado 의원은 자신의 제명 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소수인 Sandra Torres 사무총장과 일부 지도부들이 다수인 나와 동료의원들에 대한 제재에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UNE당은 이번 선거에서 2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원내 제 3당이 되었으나 Adim Maldonado 의원과 20명의 의원은 지도부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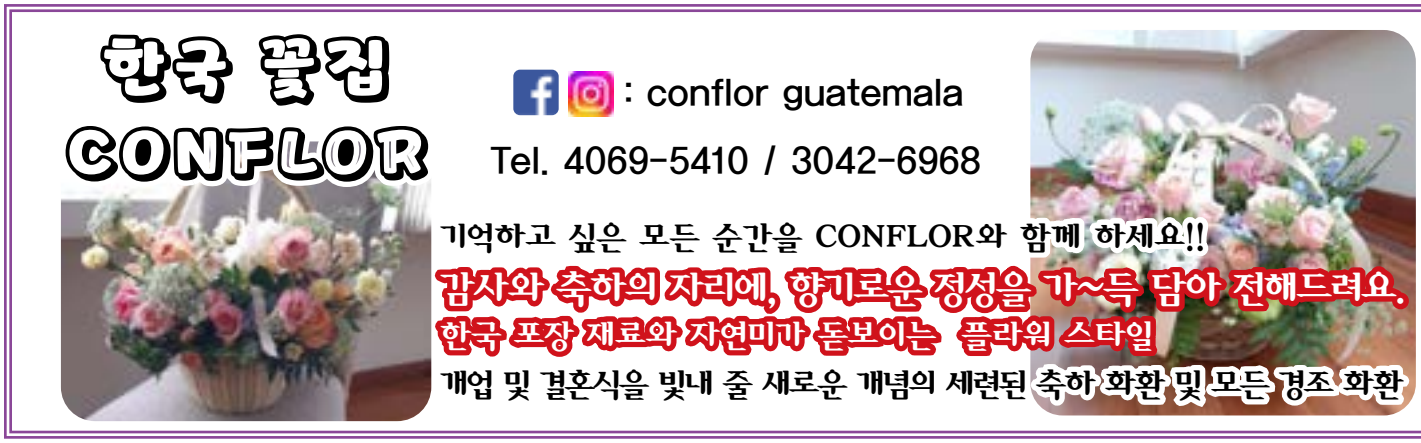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회 의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Winaq당의 Sonia Gutiérrez 의원과 Cabal당의 Nery Rodas 의원들이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emilla당은 후보를 낼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Samuel Pérez의원과 경쟁했던 Sandra Jovel 의원의 소속 정당인 Valor 당도 국회의장 후보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알려지고 난 다음날 18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시위대와 반대하는 시위대 간에 충돌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개입해 큰 충돌로 격화되지는 않았다.

Prensa Libre

UNE, Adim aldonado와 Inés Castillo 의원 제명

Semilla당의 Samuel Perez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것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Adim Maldonado 의원이 Inés Castillo 의원과 함께 UNE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들의 제명은 Sandra Torres UNE당 사무총장(전 대통령 후보



중국 - 과테말라 통관대행 및 사입전문

빠르고 안정적인 중국물류, 저희와 함께하세요!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

완벽한 포워딩 제공

작은 물량이라도 최저의 가격으로

ShaoxingGT_Sofia 502-5124-7454 502-2254-6821

(주) 샤오싱 로지스틱스

SHAOXING INTERNACIONAL LOGISTICA, S.A.

Colonia El Naranjo Interconexion Naranjo, Las Tunas, Lote 4A Zona 4 Mixco, Guatemala.

과테 시내
배달개시
Q300 이상

과 테 골

- 도시락 전문 -

낮 12시부터
오후6시까지
모든메뉴배달

♣보쌈, 족발
♣김밥, 김치볶음밥
♣오리로스, 훈제
♣생삼겹살
♣양념통닭
♣후라이드통닭



각종 찌개♣
김치 판매♣
다양한 점심메뉴♣
영양탕(매주화요일)♣
닭,오리 백숙(오전예약)♣
출장뷔페/돌잔치/회식♣

이사칠칠-이육삼팔 / 이사칠칠-이칠칠오 / 오삼영사-사일사오
46Calle 6-87 Zona 12 Col.Montemaria 3 / 월~토 12시부터 영업



자)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Sandra Torres는 새 정부의 출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그녀와의 소셜 네트워크 설전은 정치에는 우정이 없고 쌍방간의 합의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배웠다"고 말했다.

또 "그녀(Sandra Torres)는 하나님에게 평화를 구하고 나라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제 10대 국회가 출범하기 몇 일 전 UNE 당 지도부는 Adim Maldonado와 Inés Castillo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andra Torres 후보는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회 의장단의 재선출 결정을 내린 17일 저녁,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Vos Ines?... Hoy no van a tener paz. Que la CC anulo JD y avalo sus expulsiones."(이네스야... 오늘은 평안할 수 없겠네. 헌재가 국회의장단 선출을 취소하고 너희들의 제명을 승인했어"라는 메세지를 공개한 바 있다.

Soy502

아레발로 대통령 "DGAC 국장 교체 예정"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정부 각 부처의 인사가 뒤 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우로라 공항을 관리하는 DGAC의 Francis Argueta 국장이 해임 될 것으로 보인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GAC의 간부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Francis Argueta 국장의 후임이나 해임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Francis Argueta 국장은 대통령의 해임 언질이 나온 다음날 곧바로 직원들을 모아 인사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Francis Argueta 국장은 지난 2018년 4월 29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 José Luis Benito의 후임으로 임명한 후 지금까지 DGAC 국장 자리를 지켜왔다.

Francis Argueta 국장은 취임 이 후 아우

고기전문식당 RESTAURANTE HAN GUK GWAN

한국관



냉면전문식당 그외 다양한 메뉴 / 넉넉한 주차공간 보유 (대리운전 콜 서비스)

연중무휴 / 이사삼구-오구이칠 / 2a. calle 33-14 Z.7 calzada mateo flores



여성의류.가방.신발.악세사리.
화장품.이불.도자기류.영양제.
다이어트 제품.애견간식.
여러가지 소품들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휴일
Tel 오영영영 - 칠오공삼
2calle 33-14 zona.7
Calzado mateo flores
한국관 입구 옆 ~

로라 공항의 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나 잦은 정전과 침수 및 열악한 화장실 등의 공항 시설 문제로 비판을 받아 왔다.

Soy502

시내 차량정체 증가로 43개 가변차선 운행 중

일부 대학들의 개강으로 주초부터 시내 출퇴근 시간의 차량 정체가 늘어나며 가변차선 운영차선이 43개로 늘어났다.

Amílcar Montejo 과테말라시 PMT 국장은 "당초 2월 초부터 운영할 가변차선들이 차량 증가로 1월 16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1월 말 기준 시내 운행차량은 90만 대, 2월 말에는 120만 대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차량 정체를 일으키는 사고와 교통규칙 위반이 늘고 있다며, 과속, 곡선길에서 추월, 교통신호 무시, 주차금지 구역 주차,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에는 최소 Q 500에서 최대 Q 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겨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mílcar Montejo 국장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달라고 밝혔다.

시간에 따라 차량의 이동방향이 달라지는 가변차선 운행 도로는 아래와 같다.

▲ Calzada Roosevelt
▲ Ruta de Atlántico
▲ San Cristóbal
▲ Calzada San Juan
▲ 20 Calle zona 10
▲ Colonia del Carmen zona 12
▲ Colonia La Reformita
▲ Avenida Mariscal
▲ Calzada La Paz
▲ Lavarreda zona 18
▲ Los Olivos zona 18
▲ Calle Martí

Soy502

샬롬여행사
(SHALOM TOUR)
CALZADA ROOSEVELT 33-86 Zona 7
EDIFICIO ilumina # 802 호
2439-7650, 2439-7706, 5990-7197
shalomlim@hotmail.com, shalomlimgua@hanmail.net

주소 이전 : CALZADA ROOSEVELT 33-86 Z.7 EDIFICIO ilumina # 802 호

최근 항공권 요금 인상으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미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항공사 운항 시간 조정으로 티켓을 미리 발권하신 분들은 탑승전 꼭 운항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출발 항공권도 발권합니다)

소나 7 아람 옆
로데오마트2호점
22215364
아주편리한 위치

한인교회 길목
로데오마트본점
24339015
층 본점 물건이 가장 많아요

소나 14 바로옆
로데오마트3호점
23670137
아람입점마트

맛있는 쌀
12월30일 입하









라 이 프



새치 염색, 화학성분 수천 개 바르는 건데… 괜찮을까?

주기적으로 새치 염색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염색약에는 수천 개의 화학성분이 들어 있어, 염색을 자주 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염색, 자주 해도 괜찮은 걸까?

◇염색약 PPD 성분, 점막 자극·알레르기 유발해

염색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은 파라-페닐레디아민(PPD) 성분이다. PPD는 염색을 빠르고 선명하게 진행하도록 해주나 부작용도 있다. PPD는 점막을 자극하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염색할 때 눈이 시리거나 따끔한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염색약 성분이 각막과 눈 점막에 자극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각막 상피가 약해져 있는 당뇨병 환자, 헤르페스 각막염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염색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머리 염색이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안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염색약이 각막을 자극해 시력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머리 염색을 몇 번 한다고 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지만 각막 손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경이나 고글로 눈을 가리는 것을 권장한다.

◇염색 48시간 전, 팔 안쪽이나 귀 뒤쪽 발라보기

PPD는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염색 도중 두피나 얼굴에 가려움증, 두드러기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염색을 하거나, 염색약을 바꿀 경우 사용 전 피부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팔의 안쪽이나 귀 뒤쪽에 동전 크기만큼의 염색약을 바른 뒤 반응을 확인한다. 두드러기나 발진이 나타났다면 염색약 사용을 중단한다.

◇암 연관성 입증 연구 있는 건 사실, 3~4개월 이상 간격이 최선

한편, 머리 염색을 하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염색약과 암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가 여럿 있다. 방광암의 경우 일찍이 역학연구를 통해 염색약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연구에서는 1514명의 방광암 환자와 1514명의 일반인을 조사한 결과, 염색약을 한 달에 한 번 일 년 이상 사용하는 여성은 방광암에 걸릴 위험이 2배 높았다. 15년 이상을 같은 빈도로 사용한 여성은 3배 높았다. 학계는 염색약 속 PPD 성분이 대사되면서 방광에 머물며 방광세포에 변이를 유발하고,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방광암의 가장 확실한 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자라면 염색을 자제해야 한다.

유방암·난소암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스트리아 빈 의대 연구팀은 미국인 약 11만72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암 발생·사망 여부와 염색약에 노출된 상태·기간·빈도를 36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염색약을 사용한 기간과 횟수가 많으면 다른 암과 달리 유방암·난소암은 발병할 가능성이 있었다. 연구팀은 염색약의 화학물질이 에스트로겐 분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염색약을 사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위험이 9%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엘에이 해피 택시 서비스
LA Happy Taxi 서비스

♠ 공항픽업 및 출국 / LA 시내 관광 / 쇼핑
♠ 호텔예약 / 단체환영
♠ 안전운행 / 저렴한 요금
♠ 초행길이나 여성 및 미성년자 환영



+1) 213-292-0740
+1) 213-407-9496

LG

Life's Good.

LG 한국 인기 가전 예약 판매

LG StanbyME Go

1. 가격: 정상가 Q11,499 → 예약주문 Q9,199 (20% D/C)
2. 배달: 24년 4월부터 개별 배송.





여행 가방에 화면을 담은 캐리백 디자인



Dolby Vision으로 완성한 색감과 디테일, Dolby ATMOS 의 입체적인 사운드



스마트 스크린: 터치 스크린으로 쉽고 간편하게



3가지 화면 모드로 콘텐츠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가능



OTT 서비스 기본 탑재로 어디서든 만나는 최애 콘텐츠

LG StandBy Me

1. 가격: 정상가 Q9,999 → 예약주문 Q7,799 (20% D/C)
2. 배달: 24년 4월부터 개별 배송.





나만의 스크린: 자유롭게 이동, 각도조절, 높이 조절, 세로 모드

무선과 무빙휠을 이용해 다양한 장소로 이동



연결성: NFC, 미러링, Apple AirPlay 2, Apple HomeKit



스마트 스크린: 터치로 실행하고 탭으로 연결



내장형 전송 서비스: OTT 서비스

- 주문전화: 5446-2547 (담당자: Sofia Franco) / 9 ~17시 사이 접수

결과가 국제 암 저널에 게재됐다. 그렇다면 염색을 가끔 해도 암 발생률이 높아질까?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노출 기간, 염색 약의 종류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염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염색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현재로선 건강에 유해한 PPD 성분이 없거나, 저농도로 들어 있는 염색약을 골라, 띄엄띄엄 쓰는 게 최선이다. 영국 연구에 따르면 1년에 6회 이상 염색을 하면 유방암 위험이 커진다. 염색은 최소 3~4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하는 게 좋다.

기억력에 좋은 '이 보충제' 청소년 우울증도 낮춘다

우울증 환자는 세포막의 오메가-3 수치가 감소하는데 우울증 증상이 심할수록 감소는 더 커진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 도움을 줘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 가장 흔한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은 혈압을 낮추고 중성지방을 줄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학술지 《정서 장애 저널(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보충제가 청소년의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연구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중국 안후이성 우후시 우후 제4인민병원에서 항우울제인 팍실(Paxil)을 복용 중인 우울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 7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팍실은 항우울제 파록세틴의 브랜드명으로 일반적으로 우울증뿐만 아니라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및 기타 특정 정신 건강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다. 청소년들은 무작위로 팍실만 복용하는 그룹과 팍실과 함께 피쉬 오일에서 추출한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하는 그룹에 배정됐다. 12주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팍실 복용량은 하루 20mg, 오메가-3 보충제의 복용량은 하루 3캡슐(2700mg)이었다. 용량은 우울증 치료를 위한 오메가-3 보충제에 대한 국제 영양 정신의학 연구 학회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12주 동안 연구진은 참가자의 우울 증상(몽고메리-아스버그 우울증 평가 척도), 인지 기능(몬트리올 인지 평가), 기억력(웨슬러 기억력 척도)의 중증도를 추적했다. 연구 결과 두 그룹 모두 연구 시작 시점에 비해 각 후속 방문에서 우울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팍실만 복용한 그룹에 비해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개선 효과가 훨씬 더 컸다.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우울증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더 자주 발생했다. 인지 기능과 기억력도 두 그룹 모두 개선됐지만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이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오메가-3 보충제가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개선한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정동원, "겨드랑이 한쪽만 털 풍성" 고백… 이게 건강 이상 신호?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겨드랑이 털이 짝짝이로 난다고 고백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 출연한 정동원은 자신의 신체 비밀을 밝혔다. 이 영상에서 이경규가 "해외에서 야외 촬영 중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있었는데 정동원이 옷을 안 벗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원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겨드랑이 털이 한쪽은 적게 나고 다른 한쪽은 많이 나서 그랬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와서 한쪽을 밀어 양을 맞췄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겨드랑이 털이 짝짝이로 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결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앙대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사람에게 완전히 똑같은 대칭은 없다"며 "눈 크기도 차이가 나고, 심지어 같은 두피인데도 오른쪽과 왼쪽의 모발 개수에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겨드랑이 털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몸에는 모발을 유발하는 유전자와 모발이 나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시소게임을 하듯 랜덤하게 나온다. 그래서 손상에 의해 변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겨드랑이 털의 개수도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 김범준 교수는 "참깨를 뿌리면 대충 반반처럼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듯이 모발의 경우에도 평균차가 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모발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한쪽에 더 많이 분포를 했다던가 아니면 모발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덜 나왔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겨드랑이 털은 겨드랑이 피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겨드랑이는 살이 맞닿는 부위다. 또 아포크린샘(땀을 만들어내는 피부의 외분비선)이 겨드랑이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땀이 잘 난다. 사람은 걷거나 뛰는 등 특정 활동을 할 때 반복적으로 팔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겨드랑이 피부 간 마찰이 발생한다. 마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땀이 나오면 겨드랑이 발진과 같은 피부염이나 색소침착이 나타날 수 있다. 겨드랑이 털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간 마찰을 최소화한다. 실제로 겨드랑이 털과 같은 체모가 물리적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2011년 국제 트리콜로지 저널에 발표됐다. 또 체온 조절에도 중요하다. 날씨가 추우면 겨드랑이 털이 찬 공기의 유입을 막아 열을 가둬주고, 더울 때는 땀이 증발할 수 있는 통로를 늘려 체내의 열을 빠르게 방출한다.

WONMI 채용 공고

1) 회사소개

당 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과테말라 국내 원단 시장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서, 최근 사세 확장으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지속적으로 과테말라 원단 시장을 선도해 가려고 합니다.

2) 채용내역

1. 모집 부문 및 기간

(모집 기간은 적합한 인재 채용 시까지 유효함)

- 원단 입, 출고 및 인벤터리 현황 관리
- 총무 , 인사, 경리 등 전반적인 사무 관리
- 수, 출입 통관 관리

2. 자격요건

- 신입 및 경력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 모두 지원 가능
- 과테말라 거주자 및 해외 출장 가능한 자
- 스페인어 필수 및 영어 사용 가능한 인재

3. 제출 서류

- 이력서 : 국문 또는 영문
- 자기소개서: 경력자는 경력관련 위주 기술

4. 고용형태 및 근무 조건

- 정규직, 주 5.5일 근무(토요 반일 근무함)

5. 복리 후생

- 1년 만근 시 10일 휴가 보장 및 매년 한국행 항공권 상당 금액을 실비 지급함
- 매년 연말 성과급 지급, 기본급 100% 보장 및 회사 및 개인 성과에 따라 100% 이상 차등 지급함
- 가족 및 개인 의료 보험비 지급
- 업무에 필요한 휴대폰 및 휴대폰비 지급

6. 문의처 및 서류 접수

- Wonmi 인사채용 담당자 이메일 mymaximo2013@gmail.com
- 인사채용 담당자 : 5978-1970 & 3360-9709



순풍식당

포장 및 배달 합니다.
(로데오 통합 배달)

위치 : 아람정육점 옆
32ave 1-34 Z.7 utatlan 1
5577-7686, 2508-5635

순대국밥전문	곱창전골
순대곱창볶음	제육볶음
순대 떡볶음	김치찌개
야채 불고기	된장찌개
북어 콩나물	육 계 장
소머리 국밥	설 렁 탕
해물 순두부	삼 겹 살
오삼 불고기	만 두 국
쭈꾸미 볶음	술 국
쭈꾸미 해물탕	순 대
돼지머리 주문	찐 만 두
머리고기	홍 어 회

정 치 · 경 제

"감히 어디라고?" 대통령실 과잉 경호 · 거짓 해명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 길어진 야당의원 끌어내
대통령실 "소리 지르며 손 놓아주지 않았다"
영상 확인해보니 고성도 없고 손도 내려놔
대통령 지나간 뒤 "국정기조 바꾸라" 외쳤을 뿐
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경호처장 파면하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하며 말을 건네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강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은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 전주가 지역구인 강 의원도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했고, 경찰의 몸수색을 받은 뒤 주최 측 안내에 따라 통로 쪽에 앉았다. 행사 시작 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고,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모두 기립해서 악수를 나눴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말을 건넸고, 이후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의 안경까지 빼앗았다. 강 의원은 경호원 5명에게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가며 항의했지만, 경호원들이 곧바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다시 행사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강 의원은 강제 퇴장 뒤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낸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중히 사과하고 경호실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고,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약간 당기기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어서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약간 당기기까지 했다"고 한 대통령실의 주장과 달리, 이날 유튜브에 공개된 〈KBS〉의 현장영상(링크)을 보면 강 의원이 악수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잡았던 손을 놓는 장면이 확인된다.

영상에서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무언가 말을 건네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이에 경호원이 곧바로 제지하자 강 의원은 악수한 손을 놓고 "잠깐만요"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고 다음 참석자와 악수하며 지나간다. 이 과정에서 고성은 없었고, 대통령과 잡은 손도 놓는다.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정반대로 행동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약간 당기기까지 했다"며 위협을 준 것처럼 표현했지만, 대통령이 위협으로 느낄 만큼 잡아당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순히 일반적인 악수를 나눈 정도로 보인다. 대통령도 강 의원과 악수하면서 표정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거나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시종일관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했지만, 고성도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손을 놓고 지나가자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하고, 윤 대통령이 거듭 외면하자 그제야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외친다. 그러나 곧바로 경호원들이 달려들고, 강 의원은 입이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쫓겨난다.

다른 영상을 보면 강 의원이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며 " 아니 걸어간다니까!" "걸어간다니까 놓으라고!"라고 말하지만 입을 틀어막혀 제대로 발음도 하지 못한다. 강 의원이 행사장 문밖으로 쫓겨나기 직전 "이게 대한민국이냐"라고 외치지만, 경호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나간다. 그 뒤로 강 의원은 경호원들의 제지로 행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이 행사장에서 악수하며 특정 구간에서 특정 인물과 말을 길게 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한두 마디 나누는 게 크게 문제될 수는 없다. 강 의원이 윤 대통령의 외면에 한 차례 정도 큰 목소리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지만, 경호원들이 이 정도 사안으로 국회의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과잉 경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의 해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만한 상황이다" "제도권 내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온 대통령에게 발언을 하는 게 '경호상 위해 행위'라거나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할 만한 사안이라고 하긴 어렵다. '과잉 경호'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책임 소재를 강 의원에게 돌리려는 프레임 전환 시도로 읽힌다.

오히려 대통령실 경호처가 행사 전부터 강 의원을 주시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 인터뷰에서 "뒷좌석에 경호원이 앉아 있었다"며 "귀에 이어폰을 하고 양복을 입어서 경호실 직원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바로 뒤에 앉아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행사 시작 전)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박수치다가 대통령과 악수하자마자 그 이야기(국정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꺼내자마자 바로 밀치기 시작해서 입을 막고 쫓겨났다"고 전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윤 대통령 면전에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석열)의 임기'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인 적이 있다. 경호처에서 사전에 내빈 정보를 입수하고, 강 의원을 이른바 '타깃(target)'으로 설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호상 위험 정도가 매우 적은 국회의원 내빈석에 경호원이 앉아있었다는 점은 사전에 이러한 대응을 준비한 것 아닌지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의 반박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을 강 의원 탓으로 몰고 가려는 파렴치한 짓을 중단하라"면서, 재차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상적인 악수를 하며 인사말을 건넸을 뿐이다.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벼운 악수를 하고 손을 놓았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난동을 일으킨 건 대통령 경호처"라면서 "대화를 나눌 틈도 없이 경호원들은 강성희 의원을 폭력 제압하고 행사장 밖으로 내쫓았다. 끌려나가는 도중에 강의원은 걸어가겠다고 의사를 표했으나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각종 영상에서도 대통령실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심을 전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올려 끌어낸 것이 사실"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알아서 차단하는 경호원들의 과잉 충성이 '국회의원 폭력제압' 난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거짓 변명을 할

직 원 모 집

서울나염 과테말라 법인(SEOUL PRINT GUATEMALA)에서 함께 근무하실 인재를 찾습니다.

근무지 : Zona 4. Villa Nueva(마얀골프 근처)

1. 모집부문 및 인원

부 서	자 격 조 건	인 원
생산관리 (나염)	나염기술자	1 명
관리부	경리 * 총무	1 명

2. 자격사항

1) 스페인어 가능한 자
2) GAP, OLD NAVY Compliance 위반되지 않는자
3) 과테말라 나염 기술자, 경리총무
4) 과테말라 거주자 (출퇴근 가능한 자)

3. 제출서류 : 이력서 (경력사항 자세하게)

4. 서류접수

E-MAIL 접수 (spguate.ad@gamil.com, spkim1719@daum.net), 4830-4412 충원시까지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제 무서워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냐. 앞으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침묵해야 하는 것이냐"며 "야당 대표는 국민의힘 출신의 태극기 부대원에게 정치테러를 당하고, 행사에 초대받은 지역 국회의원은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만들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냐"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르냐. 이게 나라냐, 이게 민주주의냐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경호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듯 끌고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촛불행동은 긴급성명을 내고 "입법부에 자행된 윤석열 정부의 폭력과 폭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회의장과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에게 즉각 공식 항의해야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과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며 "충격적인 이번 사건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능력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재명, "한반도 평화 흔들리고 있어 대북 강경정책 전환하라"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더 큰 돌 던져서 상처 낸 들 무슨 도움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북 적대적 강경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민족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온 국민이 민생경제 위기로 고통받는데, 이제 안보 위기까지 겹쳐서 국민들의 삶이 극도로 위축되고 위험해지고 있다”라면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는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도 거듭 말씀드린다.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대강 대치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또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한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민주당, 여당 요구 상당부분 반영 "이태원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회견문을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8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집권 여당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스스로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의과정에 비협조로 일관해 왔으며, 여야 합의 처리를 갈망해온 유가족들에 등을 돌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비정한 행태를 지속해왔다”며 “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사항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였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까지 수용하여, 쟁점 사항의 대부분을 해소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또 “유가족들에게 양보에 양보를 구하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한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집권여당이 끝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은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총선 정쟁용이라고 하고,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한 바 있음에도, '총선 때 정쟁화'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이송 즉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 첫 의총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의원총회 결론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라고 하니, 참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만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참 비정한 정권이고 비정한 정당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재협상 요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 수정안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유가족과 민주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은 결국 특조위 자체는 받는 척하면서 그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한겨울 오체투지, 어머니들의 삭발,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진실을 가리기 위한 시도에 맞서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며 '거부권' 건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당신들의 뇌 구조와 혀 구조가 참으로 궁금하다. 한 가지만 묻겠다. 당신들도 사람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힘당이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포기를 선언했다"며 "당리당략에 눈멀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정권과 여당은 존재 가치가

Colegio Han Al Internacional

"Más que un colegio, una familia sin fronteras"

◀ 2023 - 2024 새 학기 신규 학생 모집 ▶

한알에서 2023-2024 새 학기 8월 17일 부터 ‹‹ 의대 준비반 ›› 을 개설합니다.
대상 : 9학년 (25명) Test 후 합격 여부 통보

Course Plan

9th	10th	11th	12th
Earth Science	Biology	Anatomy/Physiology	Microbiology
Physical Science	Physics	Chemistry I	Chemistry II
Geometry	Adv. Algebra	PreCalc	Calc
World His I	World His II	US History	Politics
Lang/Lit I	Lang/Lit II	Lang/Lit III	Lang/Lit IV
Español I	Español II	Español III	Español IV
Algorithm	Coding I	Coding II	Coding III
Lab	Lab	Lab	Lab
Psychology	Statistics	Ethics	Research

자세한 문의사항은
과테말라 Colegio Han Al Internacional 로 문의하세요.

주소 : 15Calle 2-64 Z.10 Guatemala 01010 / PBX : 2314-0101, 5482-7234 / www.hanal.edu.gt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 횡포 문제 묻자 윤 "상속세 많은 탓" 동문서답

"상속세 때문에 서민·중산층 피해" 황당 논리
소액 주주 손실 끼치는 기업 결정 비판하자
"대주주 상속세 할증이 한국 증시 발전 막아"
초부자 감세 마지막 퍼즐은 상속세 완화?

지난 주말 전 세계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외신이 화제가 됐다. 글로벌 화학 기업 바스프 창업자 가문 상속인인 마를레네 엥겔호른이 자신이 물려받은 2500만 유로(약 360억 원)를 기부하려고 하는데 사용처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해 달라고 했다는 보도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단순 기부 대신 시민 토론을 거쳐 사용처를 결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묻자 엥겔호른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기부처를 결정하는 것조차 부당하게 얻은 특권이라는 생각한다. 부유한 상속인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단체에 돈을 기부하거나 재단을 만드는 것 역시 상속받은 부에서 나온 권력이다."

많은 이의 감흥을 불러일으킨 이 뉴스를 접하지 못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유한 상속인'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그것도 과도한 상속세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다. 한국은 상속세가 많아 가업 승계가 어렵고 이것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다. 인기 경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전석재 씨는 "기업들이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 소액 주주의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곤 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경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 의견을 물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경제전문 방송 CNBC가 한국 재벌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와 한국 증시의 단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대기업집단(재벌기업) 대주주인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어야 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들에 피해를 주는 원인은 대부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질문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관련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이 나오길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질문을 세제와 연관시키며 느닷없이 '대주주 상속세 할증' 문제를 거론했다.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재벌과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는 불가능해진다.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참석자들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동문서답'이었을 것이다.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 횡포를 견제할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선 대통령령으로는 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이 도와달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질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동안 상

명 진 정 밀
뚤람수 로떼 9 만사나 A 섹또르 5
소나 4 데 믹스꼬
전화 : 이사삼사-이이오이/일오삼사
팩스 : 이사삼칠-팔구영칠
핸드폰 : 오영영사-영팔영육
마이깡 몰드 제작
재단기 부속 판매
패턴 포마 아크릴
마카지,패턴지,밑종이
미싱부속 판매
봉재용 소모품
각종 바늘 판매


속세 경감 또는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재계와 부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셈이다.

이 같은 맥락을 떠나 상속세가 주식시장의 발전을 막고 서민과 중산층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일단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서민·중산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상속세는 이런저런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를 해준다. 그러다 보니 실제 과세 대상은 많지 않다. 연합뉴스가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상속세 납부 인원은 1만9506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사망자 수가 30만 5913명였으니 전체 사망자의 6.4%만 상속세를 낸 것이다.

대주주가 상속받으면 시가로 측정된 주식 평가액의 20%를 더 내는 할증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가업 승계가 어렵고 이는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따져봐야 한다. 승계는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총수 일가가 승계하지 않으면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말도 100% 맞는 말이 아니다. 전문 경영인이 승계해 성공한 기업도 적지 않다. 결국 재계와 윤 대통령 주장은 상속세 경감을 노린 궤변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주주가 상속세를 덜 내려고 세금 납부 시점에 맞춰 일부러 악재가 되는 공시를 낼 수 있다. 이때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주주의 꼼수가 상속세 할증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상속세야말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기한 헌법 119조 2항을 가장 잘 반영한 세금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등 엄청난 재산을 보유한 부자들조차 더 많은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부의 과도한 편중과 양극화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자본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율을 낮추고 대주주 할증을 없애는 세제 개편은 법인세와 주식 양도세,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하거나 폐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적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후의 보루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로 많은 국민은 실질임금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8일 "윤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까지 시사한 것은 초부자 감세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로 생각된다"며 "부자들 세금을 줄인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들이 근로소득을 더 내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면서 버티는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GLOBAL SOURCING ENTERPRISE

(주)풍인 GSE Guatemala 경력직 채용

1. 모집 부문 및 기간
- 미주 영업 관리 : 경력 3년 이상 0명 (의류수출벤더 경력자 우대)
- 채용시 까지

2. 자격 요건
- 모집 부서에 해당 하는 경력자
- 과테말라 거주자 및 해외 출장에 문제가 없는자
- 영어필수, 스페인어 능통자 우대

3. 제출 서류
- 이력서 : 국문 또는 영문
- 자기소개서 : 경력자는 경력관련 위주 기술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후 2차 면접 진행 합니다

4. 고용형태 및 근무 조건
- 정규직
- 주5일 근무
- 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은 면접시 협의가능

5. 문의처 및 서류접수
- GSE Guatemala 채용담당 annielee@gsent.co.kr

* 최종 합격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이며, 허위 기재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사 회

끌려나간 강성희 진보당 의원 "대통령 끌어당긴 것 사실 아냐" 사과 · 문책 요구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원에게 끌려나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18일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 관계자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당기는 등 '위해 행위'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설명은 사실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라디오 인터뷰에서 " 대통령과 내가 손을 잡은 것을 잠깐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제지하기 전에) 이미 손을 놨다"며 "'(대통령)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것도 영상에 보면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이든-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의문스럽다" 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현장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다가 대통령 경호원들한테 입이 틀어막힌 채 팔다리를 들려 밖으로 끌려 나왔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는 등 경호상 위해 행위에 따른 조처였다고 했는데, 강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의 문책도 요구한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은 국민에 대한 모욕"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후폭풍 거세

"전북도민 잔칫날 재 뿌린 것도 모자라 검찰독재정권 민낯 드러내"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이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퇴장 당한 것과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규탄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정기조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했더니 경호원들 달려들어 입 틀어막고 사지 들어서 끌어내"...강성희 의원 '전북특자도 행사장 강제퇴장 사태' 파장 '일파만파'

전북민중행동은 18일 '대통령 경호 인력에 의한 강성희 국회의원 폭력 제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민중행동 "경호 인력, 지방 행사장서 지역구 국회의원 폭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폭거"

이어 "대통령 경호 인력이 강성희 의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한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전북민중행동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경호 인력이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회의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퇴거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고 성명에서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기 위한 행사장에서 자행된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 폭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비상식적 폭거"라고 규정한 성명은 "윤석열 정부 경호 인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면 봉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5일 윤 대통령의 대전 방문 일정 당시에 전국공공연구노조를 비롯한 노동자들과 과학계 단체에서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도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던 상황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장소가 대형버스 3대에 완전히 가로막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성명은 "오늘 발생한 사건은 그보다 더 나아가 대통령 경호인력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힌 뒤 " 자유와 국민을 말하는 정부의 경호처가 정작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목소리는 모두 차단하고 제압하는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실수라고 변명하



거나 묵과한다면 시민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성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앞으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침묵해야 하는 것인가...경호실장 사퇴하라"

진보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강 의원의 강제 퇴장과 관련 대통령실의 사과와 경호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한 것이 대화도중에 끌려 나갈 일인가"라며 "'이제 무서워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대통령에게 침묵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호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듯 끌고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힌 임 원내대변인은 "야당 대표는 국민의힘 출신의 태극기부대원에게 정치테러를 당하고, 행사에 초대받은 지역 국회의원은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만들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누구의 지시로 국회의원이 행사장 밖에 내던져 졌는지 책임 있게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덕춘 예비후보 ”대통령 1인 전체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폭거...모든 방법 동원 행동 나설 것“

이날 이덕춘 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사과하고 경호실장은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전체주의에 사는 것 같다. 대통령 1인 전체주의가 낳은 또 하나의 폭거"라고 강조한 이 예비후보는 "전북도민의 잔칫날 재를 뿌린 것도 모자라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의 즉각 사과와 경호실장 사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친윤 논객 진중권 강성희 의원 사건에 망언

대통령실의 일방적 발표만 주워섬기며 강성희 의원 비난

2024년 1월 19일 [12.9] 금요일

지난 18일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시 을)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붙들린 채로 끌려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말을 했는데 그 즉시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친윤 논객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가 대통령실의 일방적 발표만 읊으며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운동권 버릇”이라고 비난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진 교수는 1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의)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그런 건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라 발언했다.

그러면서 “영상만 가지고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최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있었잖나. 대통령 경호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강성희 의원은 운동권도 아니고 행사장 와서 뭐 하는 거냐. 그런 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또 진 교수는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운동권 버릇이다. (강 의원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며 “일반 행사장에서도 소리치면 끌려 나간다. (그런데) 계속 소리 지르고. 국회의원이 그거 하는 사람이냐. 좀 점잖게 의사 표현을 해야지”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거기가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잖나.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그런 논쟁을 할 자리도 아니었다”면서 “그런 식으로 도발하고 시비 걸고 정치 문제화하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지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날 발생한 강성희 의원 강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해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강 의원이 잡은 손을 본인 쪽으로 당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의 전북 지원을 약속하고 축하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선)를 넘어선 일이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런 대통령실의 일방적 발표를 그대로 읊으며 강성희 의원을 비난한 셈이다. 하지만 피해자 강성희 의원의 말은 전혀 달랐다. 강 의원은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19일 강성희 의원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의문스럽다”고 밝힌 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 측의 설명과 달리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며 “그리고 경호원들이 다 저를 밀치고 압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끌려 나가게 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즉, 대통령실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셈이다.



또 강 의원은 “대통령과 제가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미 손을 놓았다”며 “진로를 방해했다는 것도 영상에 보면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 간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입이 틀어 막히고 쫓겨나는 과정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보고 있는 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이 더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강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한 것엔 “저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답했다. 또 강 의원은 “이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 문책을 요구했다.

검찰, 임종석 · 조국 '또' 수사 혐의 입증은 난망

2020년, 2021년 무혐의에도 또다시 재수사
JTBC 검찰 인용 보도 명분, 허위·과장 유력
정치적 의도 수사·기소 강행…유죄 가능성 희박
임종석 엮을 ‘징검다리’인 한병도, 무죄 받아
조국, ‘과거 후원회장’ 이유만으로 끝없이 엮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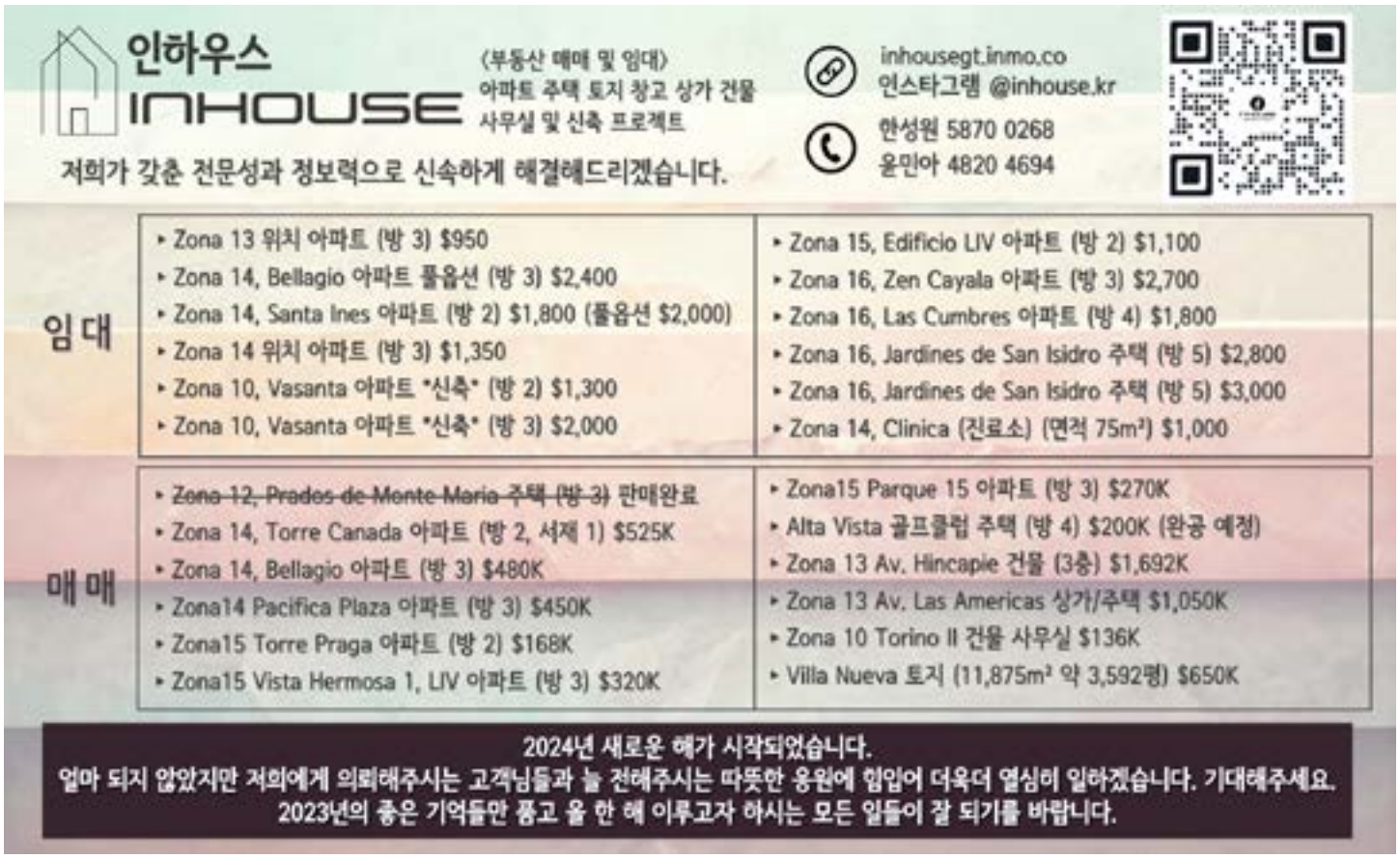
검찰이 소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년 전 불기소 결정됐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또다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2023년 11월 29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돼 재기수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9년 12월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2020년 1월에 기소가 이뤄져 재판이 시작됐다. 그런데 검찰은 추가수사를 한다며 1년 3개월이나 재판 진행에 발목을 잡고 질질 끌었고, 그 결과 2021년 4월에 추가 수사도 마무리되고 5월부터 실제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이 1차 기소 이후 재판을 공전시키면서 1년 3개월이나 추가 수사를 벌이며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기소했지만, 당시 불기소한 대상자만도 31명에 이르렀다. 이미 기소한 13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가 대부분 불기소가 된 것이다.

심지어 추가 수사의 유일한 ‘소득’이었던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은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초 기소의 수사기간보다 훨씬 긴 1년 3개월 동안 재판을 공전시키며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 추가 수사 결과에서 불기소한 31명 중에는 임종



석, 조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증거가 없어 불기소한다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굳이 덧붙이기도 했다. 당시 장기간 추가 수사의 실질적 속셈이 임, 조 두 사람의 기소였던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다.

당시에도 검찰은 이진석 추가 기소로 울산 사건은 종결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9일 이 '울산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의 기류가 바뀌었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기현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 재개를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판결문에 임종석, 조국이 언급되어 있다면서 법조기자들에게 수사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흘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1심 판결문에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언급된 부분은 혐의 사실과 전혀 무관한 맥락이었다.

임 전 실장이 언급된 부분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임동호가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이고(즉 임 전 실장은 행위 주체가 아닌 객체), 조 전 장관이 언급된 곳은 그가 과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수많은 진보진영 인사들의 후원회장을 맡았고 그중에는 '조국 사태' 이후로 수년째 조 전 장관을 공격하고 다니는 정치권 인사도 있다.

게다가 그런 판결문 내용조차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검찰의 공소장 등 주장들을 받아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검찰이 자신들로부터 나온 언급이 재판의 혐의와 무관하게 단순히 판결문에 실렸다며 수사 재개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자가발전'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서울고검이 내세운 명분,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2023년 11월29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면밀한 검토'만이 있을 뿐 새로운 증거는 없다는 의미가 된다. 단지 현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도로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그 새로운 사정이 증거가 아닌 것은 확실해보인다. 잔뜩 허세를 부린 명분에 정작 알맹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또 수사의 '야바위판'을 벌이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JTBC는 '검찰 수사팀 내부보고서'를 거론하며 '문재인정부 청와대 문건을 확보하지 못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는 상식과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 18일에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므로 아직 '내부 보고서'를 낼 '검찰 수사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즉 JTBC가 거론한 '내부보고서'는 과거 수사 당시의 보고서인 것이다.

실제 조선일보는 정권이 바뀐 직후인 2022년 5월 16일에 〈文청와대에 막힌 월성·울산 사건…법조계 "대통령 기록물 압수 필요"〉라는 기사에서 '법조계'를 인용해 사실상 같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조선일보가 인용한 '법조계'가 검찰로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서 거론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2020년 1월 11일의 일이었고, 1차 기소는 그 얼마 후인 1월 29일에 이루어졌다.

즉 JTBC가 보도한 청와대 압수수색 운운 '내부 보고서'라는 것은 2020년 1월의 1차 기소 당시의 보고서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지도 않았던 2021년 추가 수사 당시의 보고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1년 3개월의 추가 수사까지 벌이고도 두 사람을 '최종' 불기소 처분한 바 있는 검찰로서는 2021년 추가 수사도 아닌 2020년 최초 수사 당시의 '내부 보고서'에서 압수수색 거부를 거론한 부분이 현 시점에서 재기수사를 벌일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JTBC 법조팀을 이용해 허구의 명분을 퍼뜨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JTBC 보도의 '내부보고서'는 서울고검이 했다는 '면밀한 검토' 결과 찾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사의 '명분'이 아니라 검찰이 임종석과 조국을 한 번 더 털어볼 '기회'에 불과한 것이다

현행법상 공소권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고, 검찰이 기어이 기소를 하겠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대한민국의 누구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속절없이 형사법정으로 끌려나가게 되는 것이 현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두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간대도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는 난망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혐의를 주장하려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거쳐야 한다. 즉 검찰에게는 한 전 수석이 임 전 실장으로 가기 위한 징검돌인 셈이다.

그런데 한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의 이유는 증거도 없고 임동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 전 수석에게도 인정되지 않은 혐의에 임 전 실장을 엮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조국 전 장관을 엮기는 더욱 어렵다. 검찰이 쥔 것은 오직 '과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적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뿐이다. 그런 식이라면 조 전 장관이 후원회장을 맡은 적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그래서 최초 수사, 추가 수사 모두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 한 번 못했다.

이를 거꾸로 따져보면, 두 사람 모두 검찰이 겨냥하는 혐의와 이토록 턱없이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를 내린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의 수사 외에 다른 이유를 짚기 어려운 것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9일 보석 석방됐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수감됐던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특검 시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박 전 특검 측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50억 클럽'은 이미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허위라고 증언했고 관련 사건(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제트 여행사
Jet Express
Travel Agency & Tours



❖ 항 공
전세계 항공권 특가
한국 출발~과테, 과테출발~전지역
중국 노선 특가

❖ 관 광
연중 패키지 관광 전문
중남미, 카리브해, 유럽, 크루즈
맞춤관광 및 골프투어, 선교팀 안내

❖ 차량 운행
렌트카
중미 전지역 차량 운행
대형 . 중형 . 소형 운행

❖ 호텔 예약
과테 전지역 호텔 예약
전세계 호텔 안내 및 예약
게스트하우스

mail : jetexpressgua@yahoo.com / 13 Calle 3-40 Local 41 2 do Nivel Edificio Atlantis Z.10
Tel : (502)2385-4646 직통전화 : (502)2383-4324 HP : (502)5867-5867

국 제

이란 3개국 연쇄 공습 중동 내 패권 '보여주기'? "영향력 오판, 보복 불러와"

대내외 의식한 영향력 행사 차원
미국엔 "직접 나설 수 있다" 메시지
파키스탄 보복··· 우호관계 손상 우려만

이란이 최근 시리아·이라크·파키스탄 등 인접 3개국을 직접 공습한 것을 두고 대내외적으로 중동지역 내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이란서 발생한 폭탄테러 여파로 격앙된 강경파를 달래려는 목적이 두드러지지만, 이 과정서 자국 영향력을 오판해 우호적 관계인 파키스탄까지 공습했고 보복 공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18일(현지 시간) 최근 이란의 잇단 공습 소식을 전하며 그 배경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WSJ는 “이란의 파키스탄 등에 대한 공격은 자국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시도였으나 파키스탄의 보복 공격으로 그 한계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직접 중동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삼가 왔으나 최근 이례적으로 인접 3개국을 직접 공격했다. 지난 15일 이라크·시리아에 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16일에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에 있는 이란의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조직 근거지를 공격했다.

이 같은 공격은 국내외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특히 이달 초 국민영웅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벌어진 폭탄테러로 100명 가까이 숨지자 국민적으로 보복 요구가 커졌고, 자국의 영향력을 보여줘야 했다는 얘기다. 유라시아그룹의 그레고리 브루 분석가는 로이터에 “이란의 파키스탄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위기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결의를 동맹과 적 모두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시리아 특사를 지낸 조엘 레이번은 WSJ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라며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파키스탄 접경지대에 있는 무장세력을 타깃으로 삼았고, 파키스탄 공습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파키스탄이 국내 정치·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복 공습에 나섰다는 점이다. NYT는 “이란의 파키스탄 공습이 우호적이던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미 긴장 상태인 중동지역에서 한 번의 계산 착오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 브릭스 가입 두고 미 · 중 사이 '골머리'

두달새 '가입했다→아니다' 입장 왔다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가입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사우디는 브릭스 회원국으로 가입했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공식 석상에서 번복했다.

지난달 2일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이 "브릭스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유익하고 중요한 통로"라며 가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사우디의 마지드 알카사비 상무부장관은 "사우디는 브릭스에 초대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다"며 이를 뒤집었다.

브릭스는 지난해 8월 정상회의에서 사우디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5개국을 새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사우디와 함께 나머지 4개국의 회원 자격은 올해 1월 1일부터였다.

그러나 이 사안을 직접적으로 아는 소식통 두 명은 로이터에 이번 달 1일이 결정 시한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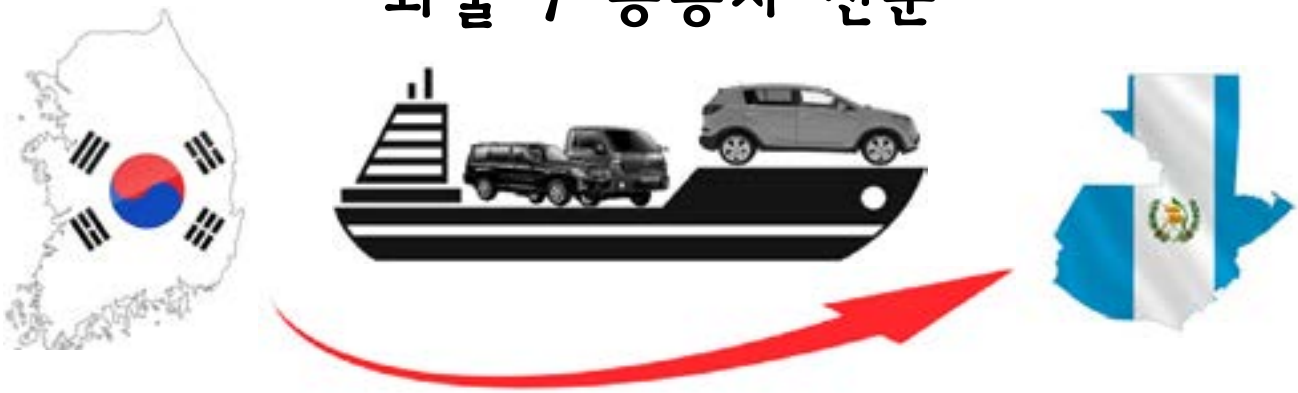
소식통 중 한 명은 중국과 인도가 사우디의 최대 무역 상대이기 때문에 브릭스에 가입하면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사우디는 현재 이득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고 전했다.

이후 파이살 알이브라힘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도 사우디가 브릭스 가입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있다고 확인했다.

자동차 및 부품 구매대행

화물 / 승용차 전문



한국에서 차량 및 부품 구매 대행

39 calle 18-62 Zona 12 ciudad capital

문의 연락처 : 3807-2004

카카오톡 ID : eseuenstar07

자동차 정비 / 부품판매



현대 / 기아 / 쌍용 전문

엔진 / 미션 / 인젝터

디젤 엔진 (가솔린 ×)



알이브라힘 장관은 "사우디는 많은 다자간 플랫폼과 기관의 회원이며 이 중 한 곳에 초청될 때마다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결정은 마지막에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비슷한 과정에 있으며 끝나면 언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우디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브릭스 가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나이프 아랍 안보대학의 헤샴 알간남 국가안보 프로그램팀 팀장은 "공식적으로 브릭스에 가입하는 것은 사우디의 경제에는 이롭지만, 다른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우디는 모든 강대국과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어느 쪽에서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신호는 보내고 싶지 않아 한다"고 부연했다.

사우디는 미국과 에너지 및 안보로 맺어진 중동의 전통 맹방이지만 러시아, 중국 등 반미 진영의 중추국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그녀가 부통령 되면 쿠데타" 트럼프 캠프 '헤일리 경계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니키 헤일리 경계령'이 확산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지지율이 높아진 만큼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캠프 내에서 헤일리에게 부통령 자리가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한 권력 다툼이 거세지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캠프 인사들이 '헤일리 부통령'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화당 내 쿠데타 가능성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헤일리가 권력 승계 1순위인 부통령이 되면 상원의 전통적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들과 정책 기조가 비슷한 헤일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란 걱정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폴리티코에 "헤일리가 부통령이 되는 건 기득권인 '네오콘(neocon)'에겐 판타지인 반면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Make American Great Again)에겐 악몽이 될 것"이라며 "헤일리는 취임 첫날부터 부통령 관저를 반트럼프 저항군 사령부로 만들고 트럼프를 사사건건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수주의자를 뜻하는 네오콘은 국제 문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다. 이론적으로는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였던 유대계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이후 공화당의 주류를 형성했으며 주유엔 대사를 지낸 헤일리 역시 이들의 외교 기조와 비슷하다.

반면 트럼프의 극성 지지층을 뜻하는 마가 세력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헤일리 반대 인사 중 한 명인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지난 15일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헤일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두 부류로 갈라진 상황에서 헤일리 부통령 임명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며 "트럼프가 공화당의 전통주의자들과 화해할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짚었다.

이러한 내부 반대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주변에 헤일리의 부통령 기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HANA TOUR

❖ 세계 전 지역 항공원 - 멕시코 직항 / 한국출발 / 과테출발 / 전 세계 출발
❖ 세계 전 지역 패키지 여행 / 단체 패키지 여행
(쿠바 / 코스타리카 / 브라질 / 페루 / 유럽 / 칸쿤)
❖ 쿠루즈 여행

이희경(Edita Lee) 3042-6968 / 카톡아이디 editaguate
email : hanatourguate@gmail.com
5A. 16-35 #703 Plaza Pacifico Sur, Zona 14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여행~~

헤일리에게 손을 내밀지는 향후 경선 과정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와 가깝지만 공화당 전통주의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당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트럼프는 헤일리를 부통령으로 선택할 것"이라면서도 "(경선에서) 서로 상처가 쌓이면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햄프셔 '헤일리·트럼프 동률' 조사 나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3위에 그친 헤일리는 23일 열리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미 여론조사기관 아메리칸리서치그룹이 지난 12~15일 뉴햄프셔주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트럼프와 헤일리가 각각 40%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헤일리의 지지율은 지난달 20일 29%에서 11%포인트나 뛰었다. 헤일리 지지층 구성은 공화당원 35%, 무소속 51%로 무당층의 투표율이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머리는 당원만 투표에 참여하는 코커스와 달리 일반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같은 헤일리의 상승세에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헤일리와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게재하고, 헤일리의 결혼 전 이름을 거론하며 인도계 이민 2세라는 점을 부각하는 등 성·인종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편 공화당 상하원 의원 179명은 연방대법원에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막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제출했다.

日 노토반도 지진 사망원인 중 80% 이상은 '가옥 붕괴'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 사망자 중 사인이 확인된 이들의 80% 이상은 가옥 붕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은 사망자 232명 중 80명의 사망원인이 확인됐으며, 그중 69명이 무너진 집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시카와현은 지난 15일부터 유족의 동의를 얻은 사망자에 대해 성명과 자택 소재지, 연령 및 사인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사망자는 3~97세의 남성 37명, 여성 43명이다.

주택 붕괴 외에 다른 이들은 토사재해로 8명, 쓰나미로 1명 사망했다. 나머지 2명의 사인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족은 구조 후 이송된 병원에서 압박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시카와현은 산사태로 20명 이상이 더 사망했을 것으로

매주 일요일 휴무
월요일~토요일
오전11시~오후8시

DON-BAB

DON BAB

솔트 삼겹살	Q85
고추장삼겹살	Q85
간장 삼겹살	Q85
돈까스	Q85
제육덮밥	Q80
불고기덮밥	Q80
DON-라면	Q65
떡볶이(2인분)	Q.120
김밥/불고기김밥	Q.75/Q.85

모둠튀김	Q.75
새우튀김	Q.150
어묵우동	Q.80
닭강정	Q.80
찐 만두(6pcs)	Q.70
튀김만두(6pcs)	Q.70
쫄면	Q.80
쫄면 짜장면	Q.80
볶음밥	Q.75






배달 주문 받습니다
삼공오육-팔일칠육
DONBAB-7

추정하고 있다. 화재로 소실된 와지마시의 아사이치 거리에서는 10명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산 피해도 심각한 상태다. 현재까지 보고된 이시카와현 내 주택 피해 건수는 18일 기준 약 2만9000채에 이른다. 다만 가장 피해가 컸던 와지마시와 스즈시의 건물 붕괴 현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왕실정원에서 왜 선탠을" VS "금지라고 했어야"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왕실 정원에서 비키니를 입고 일광욕을 하다가 쫓겨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에선 해변이 아닌 신성한 장소에서 일광욕하는 것에 대해 태국 문화를 무시한 행동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정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홍콩 SCMP 등 외신은 지난 12일 태국 방콕 왕궁 앞 광장인 사남루앙에서 백인 여성 2명이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1855년 라마 4세가 지은 사남루앙은 '왕실 정원'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왕과 왕비의 생일 기념식, 신년맞이, 기우제 등 국가 행사가 열리는 장소다. 방콕 왕궁 북쪽에 있는 사남루앙은 왕실의 화장터이기도 하다. 또 2014년 쿠데타로 집권을 시작한 쁘라윳 짠오차 전 태국 총리의 사퇴와 군주제 개혁을 요구했던 민주 항쟁의 본거지로 태국 국민들에게 의미가 남다른 장소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발견한 태국 현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곧장 출동한 경찰은 이들 관광객에게 경고하며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과 함께 해당 내용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태국 현지에선 관광객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비난이 일고 있다.

태국의 한 누리꾼은 "이곳은 해변이 아니라 신성한 장소"라며 "이 행동은 태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틀 뒤인 지난 14일에도 발생했다. 이날 태국 치앙마이의 왓 치앙만 사원에서 관광객 2명이 사원 경내에서 누워 일광욕했다. 이를 발견한 수도승이 관광객에게 "이곳에서 일광욕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줬고 곧 관광객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자 일각선 '일광욕 금지' 등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일자 프라나콘 행정 당국은 향후 사고 재발을 예방하고자 해당 지역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 밝혔다.

후티, 또 美유조선 공격하며 바이든 조롱…美도 "공습 계속"

친이란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자 홍해상 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 이란과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까지 겹치면서 역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후티 반군이 그리스 선사가 운영하는 미국 소유 유조선 '첸 레인저호'를 향해 대함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피해는 없었지만 승무원들이 배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위치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첸 레인저호는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출항해 쿠웨이트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날 공격은 후티의 수장 압둘 말리크 알후티가 현지 채널로 내보낸 1시간가량의 연설에서 "미국과 직접 대결하는 것은 큰 영광이자 축복"이라고 말한 직후 일어났다. 알후티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군의 후티 반군 시설 공습을 언급하며 "홍해상의 민간 선박 공격에 영향을 받았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습은 후티 군대의 기술을 향상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알후티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행기 계단을 오르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노인”으로 묘사하며 “그런 노인이 가자지구를 지지하는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 9000마일(약 1448㎞)을 이동하고 있다”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위협도 미사일도 압박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입장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홍해에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다.

미 정부 역시 이런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공습을 계속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미국은 영국과 후티 반군의 본거지에 여러 차례 공습을 했다. 이날도 홍해에서 발사 준비 중이던 후티의 대함 미사일 두 발을 공격했다고 미군은 밝혔다. 이뿐 아니라 지난 17일엔 후티 반군을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로 3년 만에 재지정하며 미국 내 후티 반군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다.

이와 관련,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시작된 후티에 대한 미군의 공격으로 후티의 군사 역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美 “이란-파키스탄 확전 원치 않아”

한편 미 정부는 이란과 파키스탄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매우, 매우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상황 악화를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군사동맹인 파키스탄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엔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없다”고만 답했다.

이란은 지난 16일 이란의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조직인 ‘자이시 알아들’을 공격한다며 파키스탄 내 발루치스탄 지역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자 파키스탄 측이 18일 이란 남동부 지역의 무장 단체 근거지에 보복성 공습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여성·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9명이 숨졌다.

파키스탄의 보복 공격에 이란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자, 이란 측의 판단이 ‘오판’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파키스탄을 직접 공격한 것은 국내외에 자국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시도였지만, 파키스탄의 보복으로 한계만 확인했다”고 짚었다. 미국 등 서방에 "언제든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名家 명가



돼지국밥
활어회
염소탕
선지해장국
소곱창구이

고소하고 맛있는
"소 곱창구이" 개시
- 현지인 회식 -
삼겹살 무한리필 Q110
부폐음식 / 단체김밥 주문
다양한 메뉴 / 점심 메뉴
일반 배달 합니다

국가공휴일 휴무 / 평일 9:30, 일요일 7:30까지 / 이이일구-구육육육, 이이삼사-육팔육삼, 오칠영삼-일칠삼사

스 포 츠

30년 전, 그 사건 일본은 '도하의 기적'을 잊지 않았다 "WC 출전권을 잃게 했던 상대"

일본은 30년 전 '도하의 기적'을 잊지 않았다.

일본은 19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에 위치한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이라크와 맞대결을 치른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 지난 1차전에서도 그 저력을 보여줬다. 박항서 감독님이 지휘봉을 맡으며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진 베트남과 맞붙었고 무려 4골을 터뜨렸다. 2실점을 한 것이 옥의 티지만, 전술적으로 물 흐르듯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일본의 2차전 상대는 이라크. 일본과 조 1,2위를 다툴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인도네시아와의 1차전에서도 3-1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땄다.

이라크전을 앞두고 일본 현지에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편으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일본 매체 '야후 재팬'은 "이라크전이라고 하면, 1993년 10월 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이 생각난다. 당시 추가시간 실점으로 인해 월드컵 출전권을 놓쳤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 '도하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경기가 맞다. 당시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에서 한국은 북한과 경기를 치렀고 일본은 이라크와 경기를 치렀다.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3-0 승리를 따냈지만, 일본이 이라크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한국의 월드컵 진출은 무산되는 상황. 후반 막바지까지 일본은 이라크에 앞서며 본선 진출의 희망을 높였지만 추가시간 통한의 실점을 하며 2-2 무승부가 됐고 본선 진출권은 한국에 넘어갔다.

일본 현지에선 이를 '도하의 비극'이라 표현했다. 선수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쏟아졌다. 쿠보 타케후사와 도안 리츠 등은 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사건인지라 선수들에겐 큰 감흥이 없었다. 쿠보는 "미안하지만 내게는 상관 없는 일이므로 신경쓰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도안은 "모르는 채로 있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또 조별리그 2차전서 퇴장당한 벤투, 반복은 문제

파울루 벤투 아랍에미리트(UAE) 감독이 1년여전 한국 대표팀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조별리그 2차전 막판 퇴장을 당하면서 팀을 곤란한 상황에 만들었다.

UAE 축구 대표팀은 18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팔레스타인과 1-1로 비겼다.

1차전에서 홍콩을 3-1로 제압한 UAE는 1승1무지만 3차전 최종전이 C조 최강인 이란과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다.

1차전 이란에게 1-4로 패한 팔레스타인은 UAE보다 한수 아래 팀으로 평가받았지만 UAE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최종전 홍콩전을 앞두고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전반 23분 UAE의 술탄 아딜이 오른쪽에서의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할때만해도 쉽게 승리하는가 했다. 하지만 전반 37분 수비수 칼리파 알함마디가 페널티킥을 내주는 것은 물론 유니폼을 끌어당기며 넘어진 것으로 곧바로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 흐름이 심상치 않게 변했다.

놀랍게도 이 페널티킥은 골키퍼 칼리드 에이사가 선방해냈지만 후반 5분 바데르 나세르 모하메드가 크로스를 걷어내려 헤딩한 것이 자책골이 되며 1-1 동점이 됐다.

이후 수적 우위에 있는 팔레스타인이 총 슈팅 24개로 5개밖에 슈팅하지 못한 UAE를 압도했으나 끝내 득점하지 못하고 1-1 무승부로 종료됐다. 그러나 UAE의 벤투 감독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전반 추가시간 옐로카드를 받았는데 또 경기 종료 직전에 항의하다 추가 경고를 받아 퇴장을 당했다.

벤투 감독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2차전 가나전에서 2-3으로 패한 직후 주심에 항의하다 레드카드 퇴장을 당해 3차전 포르투갈전은 관중석에서 지켜본 바 있다.

이번에도 조별리그 2차전에서 퇴장을 당해 가장 중요한 이란과의 3차전에서 UAE는 큰 부담을 지게 됐다.

한국 역시 감독 없이 3차전에서 최강팀인 포르투갈전을 치러야하는 부담감을 안은채 경기했던 전력을 생각하면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고 만 벤투 감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여자축구 미래' 페어 미국 에인절 시티FC 최연소 입단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 케이시 유진 페어가 미국여자프로축구(NWSL) 에인절 시티FC에 입단했다.

에인절 시티 구단은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페어의 입단 소식을 알렸다. 페어는 구단 역대 최연소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2007년생 페어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페어는 콜린 벨 감독이 이끈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대표팀에 발탁돼 시선을 사로잡았다. 페어는 콜롬비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33분 교체로 출전해 여자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16세 26일) 출전 기록을 작성했다. 독일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는 선발 출전해 좋은 활약을 선보였다. 1m78cm의 큰 키의 페어는 몸싸움 능력과 주력이 뛰어나다. 이런 활약을 인정받아 지난 2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여자 영플레이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페어는 구단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여자 월드컵 출전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밝혔다. 미국 PDA 아카데미에서 기량을 갈고닦은 페어는 당초 대학 진학 예정이었으나, 곧장 프로 무대로 뛰어들기로 마음을 바꿨다.

페어는 "월드컵을 경험한 후 그 정도 수준의 무대에서 계속 경쟁하고픈 마음이 생겼다. 계속 발전하고 싶다"며 "거기서 독일 대표팀과 맞붙은 후 여기로 돌아와 내 나이대 선수들과 경기하려니 기분이 좀 이상했다"고 밝혔다.

에이절 시티 구단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연고로 두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에인절 시티와 훈련하며 입단을 준비한 페어는 "한인타운에 처음 방문해봤다. 난 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한인 타운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베키 트위드 감독은 "밖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봤다면 페어가 16살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합류한 직후부터 팀과 잘 어울렸다. 경기 중에는 스스로 도전하며 발전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박상민 healthcare chlinic

가정의학과
박상민 헬스케어 클리닉



응급진료
왕진 / 특진

한국산 영양제 입고

고용양 비타민 C 주사
글루타치온 주사
아미노산 영양주사
고용양 비타민 B 주사
비만/지방흡입 주사
신데렐라 주사
남성호르몬 주사



진료시간 : 월~금요일 9 am~7 pm (예약필수)
토요일 점심시간 없이 9 am~2 pm (예약필수)
병원전화 : 2439-8225 응급전화 : 4004-6267
waze/goole/uber : 박상민 클리닉으로 찾아주세요.

맨시티 재정비리 혐의만 115개 유죄판결 시 맨시티 즉시 강등

'트레블 달성'의 영광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맨체스터 시티가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무려 115개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맨시티가 자칫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강등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이걸 제기한 인물이 바로 전 맨시티의 재정고문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매체 미러는 19일(한국시각) '맨시티의 전 재정고문은 구단이 받고 있는 115개의 재정 비리혐의가 유죄로 입증될 경우 EPL에서 강등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만한 내용이다. 현재 리그를 대표하는 명문구단 맨시티의 명성이 하루 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트레블을 달성하며 EPL 최고구단으로 올라선 맨시티는 현재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걸쳐 구단 재정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맨시티가 이에 대한 조사에 재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PL 최고경영자인 리차드 마스터스는 이와 관련해 맨시티 구단의 청문회 날짜가 결정됐다고 확인했지만, 구단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 맨시티 재정고문인 스테판 보슨의 증언으로 인해 맨시티가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이 매체는 보슨이 스포르트와 진행한 인터뷰를 인용해 '맨시티 비리 혐의의 규모는 에버턴이나 노팅엄 포레스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최소 강등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매우 심각하다"며 맨시티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단순히 승점 삭감 징계가 아닌 다이렉트 강등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슨은 "사실 지난 10년에 걸쳐 여러 비리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맨시티가 이 기간에 체결한 메인 스폰서 계약이 (구단 주장대로) 5000~6000만 파운드가 아니라 사실은 800만파운드에 불과했으며, 재정 상황에 관한 모든 것이 엉터리였다는 주장이 있다. 구단 보드진, 리그, UEFA, FA 실사진 등 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맨시티는 2002~2003시즌부터 EPL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2008년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에 인수된 이후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강팀이 됐다. EPL 사무국은 수 년전 맨시티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0회 이상 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유럽축구연맹(UEFA)은 지난 2020년 맨시티가 2012년부터 2016년에 걸쳐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2년간 유럽대회 출전 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포츠중재재판소가 맨시티의 손을 들어주며 이 명령은 무효화됐다.

그러나 새로운 청문회 등 조사가 시작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다이렉트 강등이다. 트레블 달성 등을 포함해 그간 쌓아온 명성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하성은 폭행 주장에 수억원 줬는데 류현진은 대체 왜 3억원을 건넸을까

쉽게 납득하기 힘든 전개.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저리거들이 수억원을 갈취 당했다. 대체 어떤 이유였을까.

18일 연합뉴스는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임혜동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메이저리거 김하성과 술자리 폭행, 공갈 협박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임혜동은 류현진에게도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고 보도했다. 사전 구속 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현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으로 뛰고 있는 김하성과 전 히어로즈 선수 출신이자 로드매니저로 함께 일했었던 임혜동의 갈등은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었다. 또 다른 메이저리거 한명도 얽혀있다는 풍문이 있었지만 구

번역



한국어 스페인어

문의

5308

-

4441

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던 상황에서, 18일 경찰을 통해 류현진의 실명이 처음 밝혀진 셈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하성은 과거 임혜동의 합의금 요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원 정도를 전달했고, 류현진은 임혜동이 로드매니저로 활동하던 2021년 당시, 둘 사이의 갈등을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류현진은 임혜동에게 3억여원 정도를 건넨 것으로 현재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야구계 선후배 사이로 시작해 에이전시 업무를 함께 보는 사이로 발전했던 이들의 관계는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김하성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을 통해 지난달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률대리인 측은 "상대 선수는 2021년 당시 김하성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고, 김하성은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2021년은 김하성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첫해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종목 금메달을 딴 김하성은 2021년 12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훈련소에 입소한 바 있다.

법률대리인 측은 "그런데도 상대 선수는 김하성에게 또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김하성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면서 "이와 별도로 합의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고 "김하성이 일방적으로, 상습적으로 상대 선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하성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후, 임혜동이 직접 몇몇 언론사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인터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해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임혜동은 인터뷰에서 "로드매니저로 일할 당시 김하성에게 일방적으로 꾸준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김하성 측은 이에 다시 반박했다.

임혜동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연이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문자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과 이번달 9일 김하성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 김하성은 오는 20일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 참가를 위해 미국 LA로 출국해 개인 훈련을 할 예정이다. 김하성은 임혜동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양측의 상세한 입장이 알려져있는 김하성, 임혜동의 관계와는 달리 류현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만 임혜동이 김하성의 매니저 역할을 할 당시, 김하성의 소속 에이전시가 류현진과 같은 곳이었고 이후 임혜동이 주장하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만 되는 상황이다.

K GOLF
* A,B,C 세가지 TYPE으로 볼 회원 구분
* 카트 할부 판매 가능
* 연락처 : 3057-2450 (TONY H.)
5155-2264 (PROFESOR KIM)

K SCREEN GOLF(구 준골프)
* 원하시는 방이 겹칠 수 있으므로 사전예약 부탁드립니다.
* 2시전 입장시 경기금액 할인 서비스
* 연락처 : 3057-2450 (TONY H.)

** 동일 적용 **
- 한국 프로 레슨 :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가능
(프로님과 상의 후 원하는 장소에서 레슨 가능)
- 상품권 판매합니다.
(상품권으로 스크린 경기와 볼사용, 레슨 및 상품구매 전부 가능)

연 중 무 휴
올해도 쭈~욱 오픈합니다~~

Tel.2233-7435
3057-2450 (TONY H.)/ 4029-8614 (GLANDY)
BUEVAR TULAMZU 39-89 Z.4 DE MIXCO

방 송 / 연 예

"병태 떴슈~" 임시완, 'SNL 코리아' 새 시즌 첫 회 호스트 확정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가 새 시즌으로 돌아온다. 'SNL 코리아' 시즌 5의 첫 호스트는 '소년시대'의 '장병태'로 전 국민을 웃기고 울린 대세 배우 임시완이 출연을 확정했다.

성역없는 풍자와 거침없는 패러디로 트렌드를 선도하며 매 시즌 OTT 쇼 부문 화제성 1위를 거듭했던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는 초특급 호스트들의 코믹 열연으로 매 회 화제의 중심에 서며 최근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OTT 예능 부문 프로그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시즌 김아영, 윤가이 등 젊은 크루들의 맛깔나는 서울 사투리 연기와 지예은의 '초롱이 여친' 캐릭터 등은 MZ 세대에서 다양한 밈과 패러디를 생산해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SNL 코리아' 시즌 5는 이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강력한 카타르시스와 웃음으로 돌아온다는 계획.

여기에 출연하는 작품마다 다양한 캐릭터 변신으로 대체불가 연기력을 선보이는 배우 임시완이 시즌 5의 첫 회를 책임진다. 시청량 2,914% 수직 상승, 쿠팡플레이 인기작 7주 연속 1위, 네이버 '많이 찾는 드라마', 키노라이츠 인기작 순위 등 다수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2023 최고의 흥행작으로 손꼽힌 '소년시대'. 하루아침에 부여짱이 된 온양 찌질이 '장병태'를 친근한 매력으로 표현해내며 전국민을 사로잡은 임시완은 유학으로 익힌 네이티브 충청도 사투리 뿐만 아니라 '소년시대'를 통해 선보였던 능청스러운 코믹 포텐을 아낌없이 쏟아낼 예정이다.

임시완은 "'SNL 코리아' 새로운 시즌의 첫 회 호스트로 초대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 '소년시대 '의 '장병태'로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저의 인생 캐릭터가 탄생했다. 'SNL 코리아' 시즌 5를 통해 '소년시대'에서 보여드렸던 제 코미디 본능을 남김없이 무대에서 쏟아내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SNL 코리아' 시즌 5의 첫 회 공개일은 곧 발표된다.

김희원X강풀 '조명가게' 공개 확정… 주지훈 · 박보영→김설현, 호화 캐스팅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디즈니+가 '조명가게' 공개를 확정하며 강풀 유니버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전 세계를 '무빙 신드롬'으로 물들이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을 이을 또 하나의 강풀 유니버스 '조명가게'가 디즈니+ 단독 공개를 확정했다. '조명가게'는 강풀 작가의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이자 누적 조회수 1.5억 뷰를 돌파, 지금까지 많은 독자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동명 웹툰 '조명가게'를 원작으로 한다.

이번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역시 '무빙'에 이어 강풀 작가가 직접 대본을 집필했다. 또한 '무빙'에서 정원고의 담임 선생님 최일환 역을 비롯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밀도 높은 연기와 놀라운 표현력을 보여줬던 배우 김희원이 첫 시리즈 연출에 도전한다.

이어 강풀 유니버스를 함께 열어갈 주역으로 주지훈, 박보영, 배성우, 엄태구, 김설현, 이정은, 김민하, 박혁권, 김대명, 신은수, 김선화, 김기해가 합류한다. 신구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포진하여 '조명가게'를 둘러싼 수상한 인물들로 등장할 예정이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디즈니+의 오리지



축하합니다!!!

2023 졸업생, 조온비 학생

홍익대, 국민대, 성균관대 합격!





Angie Chung Atelier

시각예술로 가는 길. 앤지 정 화실



찰흙 도기 공예반, 돌조각반 모집중

전화: 5834-1414 카톡아이디: angienius@gmail.com

이메일: whenartistheway@gmail.com

주소: 6 Avenida 13-67 Z-10 Edificio Vasanta Oficina 321

6 Avenida (Donde Mikel 식당 앞길) 입구로 입장하여 신분 체크 후 3층으로 올라오세요.

널 시리즈 '무빙'의 뒤를 이어 강풀 유니버스의 새로운 세계를 예고한 '조명가게'는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최고의 기대작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조명가게'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과연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는 2024년 공개된다.

현아, 용준형과 공개열애 시작
정준영 몰카 연루자→팬들 '걱정'



가수 현아와 용준형이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지난 18일 현아와 용준형은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쌍의 남녀가 손을 잡고 넓은 모래사장을 거니는 모습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뒷모습에 서로의 계정을 태그했다.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열애'라는 언급하진 않았으나 일부 팬들은 이를 두고 열애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현아의 공개 연애는 던과의 결별 1년 2개월여 만이다.

현아는 "현아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언니 사랑 응원할게. 이쁜 사랑해" 등 공개 열애를 응원하는 팬들의 응원 댓글에 직접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컬래버레이션에 대한 '스포일러'를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아와 용준형은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포미닛, 비스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두 사람은 현아 솔로 데뷔곡 '체인지' 뮤직비디오에 동반 출연했다. 과거 현아는 방송을 통해 용준형을 신인 시절부터 함께 활동하며 서로 고민을 털어놓는 남사친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용준형 소속사 블랙 메이드 측은 19일 오전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용준형은 2019년 3월 불거진 이른바 정준영 사건 연루자다.

용준형은 2015년 말 가수 정준영과의 1대 1 채팅방에서 정준영이 촬영한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유받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정준영은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함께 2016년 두 차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성폭행 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은 2020년 9월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용준형은 정준영과의 채팅방에서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부인했다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 사과했다. 용준형은 2019년 3월 당시 소속 그룹이었던 하이라이트(구 비스트)에서 탈퇴했다. 이후 2022년 11월 솔로 앨범 'LONER'를 발매하고 복귀했다.

美국무부, 19일 청사에서 탈북민 다큐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미국 국무부가 오는 19일(현지시간) 북한 주민의 험난한 탈북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를 상영한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코로나19 직전 발생한 두 건의 탈북 사례를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3대가 함께 탈출한 한 가족과, 북한의 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는 어머니의 사연 등 두 가족의 이야기를 그렸다. 백두산을 넘어 베트남과 라오스의 정글을 뚫고 탈출하는 장면 대부분을 탈북민과 브로커가 직접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에서 일했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박사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작년 1월 선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으며, 오는 3월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상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예비 후보작 중 하나로 선정됐다.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상영회에는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참석한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탈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작년 11월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영회를 가진 바 있다.

'어쩌다사장3' 박보영 "차태현 '아빠'라 부르다 '오빠'로 부르기 힘들었다"

박보영이 차태현에 "아빠라고 부르다가 오빠로 갈 때 힘들었다"고 밝혔다.

18일 방송된 tvN '어쩌다 사장3'에서는 '아세아 마켓'의 마지막 출근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차태현은 마지막 출근을 하며 "골프도 퍼터를 잘해야 한다. 우리도 마무리를 잘해야한다. 퍼터 마무리가 안되면 꽝이다"며 마지막 영업을 앞두고 의지를 다잡았다. 그러자 조인성은 "마무리 퍼터는 잘될거다. 박인비 씨가 있기 때



문"이라며 웃었다.

그때 "아침으로 드세요"라며 마켓 앞에 누군가가 누룽지를 놓고 갔고, 직원들은 "기분 좋은 출발"이라며 웃었다.

조인성과 임주환이 아침을 준비, 차태현은 습관대로 가격표를 붙이고 진열을 했다.

아침 8시 반에 오픈을 시작, 박보영과 박인비도 상쾌한 인사와 함께 출근했다. 그때 단골손님이 방문, 직접 쓴 '감사카드'를 건넸다. 손님은 "저희 고향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이 동네가 너무 작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고, 박인비는 "많은 분이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저희도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아침 메뉴는 누룽지. 박보영은 "아버지 식사하세요"라며 차태현을 불렀다. 영화 '과속스캔들'에서 아빠와 딸 역할을 맡았던 두 사람. 이어 박보영은 "아빠라고 부르다가 오빠로 갈 때 힘들었다. 계속 아빠 아빠 하다가"라고 솔직하게 말해 웃음을 안겼다.

그때 차태현은 문 밖에 있던 홍경민을 발견, 직원들은 격하게 환영했다.

'현역가왕' 남자 버전 론칭 확정 전 세계 아우를 남자 현역 최강자 뽑는다

'현역가왕' 남자 버전이 론칭된다.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는 "'현역가왕'이 2024년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대한민국 남자 트로트 현역 중 원톱을 가리기 위한 '현역가왕' 남자 버전 론칭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역가왕' 남자 버전 론칭은 회를 거듭할수록 '현역가왕'에 쏟아지는 시청자의 뜨거운 성원과 "여성 트로트 가수처

임 대



Z.10 Milenia 아파트, $1.650, 225mts(주차장2), 방3, 거실2, 식모방, 가구 풀옵션
Z.10 Parque10 $1.000, 110mts, 방3, Balcon, 주차장2
Z.10 Verona $900, 2룸, 100mts
Z.11 parque11 아파트 Q6.000, 104mts, 3룸 NEW
Z.11 Mariscal 창고 판매($1.250.000) 및 임대 ($5.600 + Iva) 1003mts
Z.13 Inara Americas 원룸 풀옵션 $950, 2룸 풀옵션 $1.180
Z.13 Narama 아파트.원룸 풀옵션, 44mts, 주차장1, $750
Z.14 Arcangel Miguel 아파트 $1.600, 2룸, 가구 풀옵션, 넓은 테라스, 식모방
Z.14 Almeira $2.000, 250mts, 방3, 거실2, 쥬차장3, 넓은 테라스, 아름다운 전망
Z.14 Vertic, $1.750, 2룸, 거실2, 발코니 NEW
Z.15 Liv 아파트, $1.100, 100mts, 2룸, 서재, 주차장2 NEW

한인부동산
토지.아파트.주택.오피스.창고.상가/판매.분양.및 렌트
문의전화 : 5632-9095 (하나 김)
(hanakim3431@gmail.com)

럼 남성 트로트 현역들이 한 무대에 서는 모습도 궁금하다"는 요청에 부응한 결정이다.

MBN '현역가왕'은 7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역가왕'은 2024년 치러질 '트로트 한일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여성 현역 트로트 가수 톱7을 뽑는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현역가왕' 지난 8회분은 닐슨 코리아 기준 최고 시청률 15.3%를 기록, 7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또한 화요일 전 채널을 포함해 시청률 1위 왕좌를 수성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자 트로트 현역 가수들로는 대한민국 트로트계 포문을 열고 부흥기를 일으킨 1세대 레전드 가수들을 비롯해 트로트 장르로 세대를 아우른 2세대 가수들, 새로운 '뉴 트로트'에 대한 가능성을 연 3세대 가수 등 가슴 뛰는 걸출한 초대형 국민 트로트 가수들이 위풍당당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현역가왕' 남자 버전에는 어떤 현역 가수들이 등장하게 될지, 초심으로 돌아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역량을 겨룰 '남자판 현역들의 싸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제작진은 "'현역가왕'이 8회 동안 단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 '현역가왕' 남성 현역 버전은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본격 참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여자 현역과는 또 다른 파워와 매력으로 시청자를 매료할 '현역가왕' 남자 버전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방송된 '현역가왕' 8회에서는 총 14인의 현역들이 치열한 무대 끝에 준결승행을 확정 지었다. 떠나는 사람도, 남겨진 사람도 아쉬움에 눈물을 쏟아내는 뭉클한 현장이 연출되면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다. '현역가왕'은 현재 나우 앱을 통한 7차 '대국민 응원 투표'를 진행 중이며,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는 준결승전과 결승전 점수에 포함된다.

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민사 소송 116억→198억 확대 "미정산 금액 추가"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에서 198억으로 높인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 후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으로 올렸고, 2024년 1월 기준 손해배상 요구액은 198억까지 오른 상황이다.

19일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 통화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금액을 198억으로 높였다"면서 "20여년간 친형은 박수홍에게 정산을 유보하고 법인과 개인재산을 관리

KS 인증제품

DS 덕성테이프
DUCKSUNGHITECH CO.,LTD

포장용 OPP TAPE, 포장용 LAB,etc



❖ 전화주시면 샘플 및 배달합니다.
❖ Technical Data Sheet 제공
❖ SGS Test Report (무독성 검사 성적서) 제공
❖ 당사 제품은 100M/ROLL 정량이며 여름용으로 제작 공급합니다.
❖ 광학용 점착테이프, 산업용 점착테이프, 전기/전자용 점착테이프 공급

◀ 제품상담 : 3817-4008, 4739-6294 / 32 ave 1-76 Col. utatlan 1 Zona 7

해주고 재테크해서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한 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미정산금을 청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시킨 것"이라고 운을 뗐다.

노 변호사는 "이전에는 횡령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였다.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은 정산 비율에 맞춰서 매월이나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 박수홍 씨의 경우 과거 친형으로부터 매출에 대한 정산은 7대 3으로 하는데, 정산은 나중에 하고 내가 이 돈을 불려주겠다고 했다. 당장 정산을 하는 대신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그렇다면 이 계약은 매니지먼트 계약과 동시에 포괄적인 자산관리 계약의 성질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자산관리가 종료됐을 때 그동안 관리한 분량, 또 증가된 분량은 정산 청구를 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10년이 넘어가는 것도 정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서 116억에서 198억으로 늘어난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변화하는 것도 있다고. 노 변호사는 "횡령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은 모두 저희 쪽에서 증거를 찾아서 입증을 해야 한다. 근데 정산 소송의 경우 우리는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입증하면, 피고 입장에서 연예인 및 소속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필수 비용에 대한 공제 부분을 피고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형사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부동산 매입과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법인카드 사용,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등으로 총 61억 7천만원을 횡령했다고 파악해 구속 기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친형 부부는 앞서 2차, 3차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0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교 민 장 터

교민장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테말라 거주 한국 교민들을 위한 무료공간 입니다

물품·부동산	깔레아 원목+철제 책꽂이 판매 Q900 왓즈앱30237860	진도개 강아지 무료로 분양합니다. 5785-5003	소나 1, Publito 2-16 가게 양도합니다. 4220-5142
	팝니다. 성인용 자전거 3대 일립티컬(실내용 운동기구) 디지컬 피아노(다리,의자 포함) 5017-7217	변압기 (200W,1K, 2K, 3K). 자전거 팝니다. 5923-8350	빨링에서 성업중인 식당.당구장 양도합니다. 5203-0302
차량판매	2015' BMW 520D M SPORT 트윈터보 디젤, 아헨시아 85,000KM, 무사고 $18,500 (네고) / 3024-2065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풀 체인지 모델 2020년 3만킬로 알헨시아 팝니다. 4만 3천불 3065-9798	
구인구직	쏘나1 보데가 매니저 구합니다 tel. whatsapp – 4602 5086	사무실 직원 모집 초보자 가능 5309-0021	MFM GUATEMALA 직원모집 영업부 신입/경력(영어 가능자) stko@mfmguate.com/mjkim@ mfmguate.com /2212-0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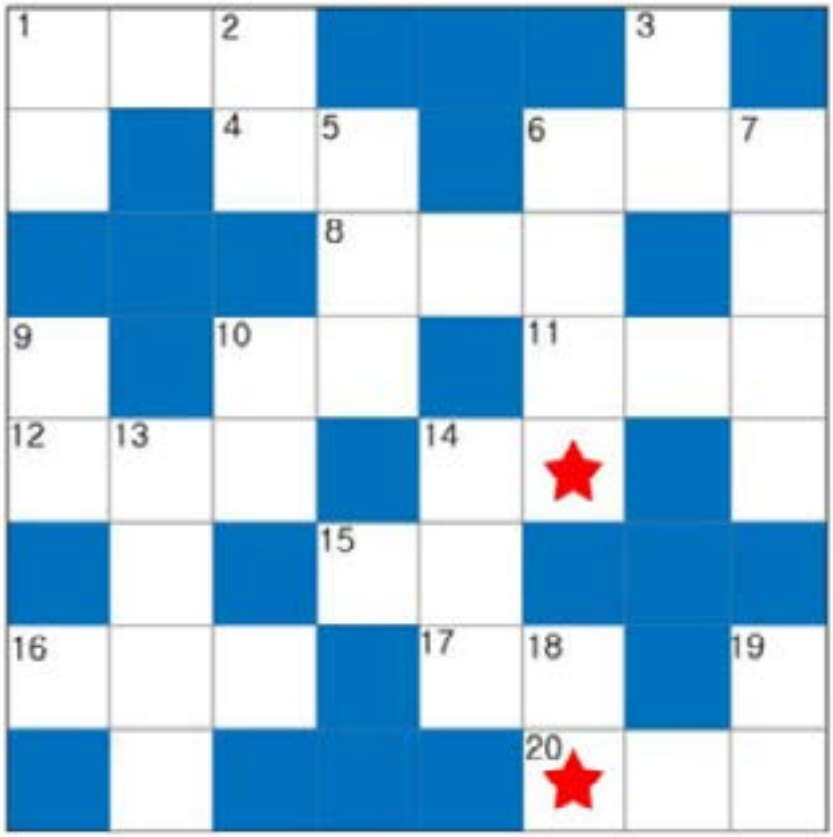
하나 엔지니어링

문의 : 오오이팔 - 이사일삼 / E-mail : hanaeng2004@gmail.com

◀ 최고급 콤퓨레셔 전용 오일 판매 ▶

*100% Full Sintético(합성유)
*콤퓨레셔 수명연장
*길어진 사용시간
*우수한 열 안정 성능
*탁월한 산화 안정 성능
*탁월한 수분리 성능
*탁월한 방기/소포 성능
*우수한 내마모 성능
*광범위 온도 범위 사용
*씰 (Seal), 각종 고무재질과의 상용성
*소비전력 절감
*탄화 잔류물 미생성

낱 말 퀴 즈



지난 답



고금○○

■가로열쇠

1.철이 바뀌는 시기
4.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빎
6.약액을 피부 깊숙이 주사하는 기구
8.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안경
10.기회나 시기 따위가 더할 수 없이 좋음
11.두 얼굴을 가진 신
12.손오공, ○○○, 저팔계
14.병원균을 죽이는 일
15.물건을 싸거나 꾸림
16.새의 등마루뼈의 끝이 되는 부분
17.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20.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

■ 세로열쇠

1.기뻐하는 마음
2.신문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글
3.회사에 취직하여 들어감
5.부모가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함
6.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
7.진기한 세계 기록을 모은 책
9.지위가 위인 사람
10.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
13.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
14.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파
18.음악의 곡조를 기호를 써서 기록한 것
19.폭력을 써서 적을 위협하는 행위

서 녀 전

"유대인께서 고생하시네요. 다만..... 집안의 허물을 내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이 걸립니다."

명란이 피식 웃었다. 유정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문무백관의 대소사를 모를리 없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용이는?"

녹지는 신난 기분을 감추기 어려웠지만, 명란한테 핀잔을 들을까 봐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창이 그 아이는 애초에 용이 아가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가씨가 한참을 달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저 아가씨와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그 여자가 왔고.. 모녀가 문을 닫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성이 오가더니 용이 아가씨가 울면서 뛰쳐나와 방으로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울고 있다 합니다."

명란은 잠자코 있었다. 녹지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말했다.

"나리께서 분부하신 대로 창이를 보냈고, 그 여자는 다른 길을 통해 경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유 대인께서 보낸 호위병이 학 관사와 술을 마시면서 몇 마디 흘렸는데, 그 여자가 다시 경성으로 돌아오면 그땐 사막으로 노역을 보낼 거라 했답니다."

명란은 침묵을 지켰다. 예전에 고정엽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자기 사정을 알고 있는 다른 친우들은 대부분 관대하게 보아 주는데, 유독 유정걸은 자신에게 계집애처럼 마음이 약하다고 놀렸단다. 잘라낼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에 끊임없이 휘말릴 거라면서, 다른 사람은 만랑에게 인정을 베풀지 몰라도 유정걸만큼은 결코 봐줄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이 고정엽이 유정걸에게 부탁한 이유 이기도 했다.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는데, 바깥에서 도룡이 뵙기를 청한다고 알려왔다. 명란은 잠시 멈칫했다가 얼른 대답했다.

"바깥방으로 와서 말씀하시라 하거라."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바깥방에 선 도룡이 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쉬고 계신 데 죄송합니다. 사소한 일인 듯하나, 부인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명란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최씨 어멈이 조심스럽게 단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녹지는 문 옆에서 발을 사이에 두고 낭랑하게 말했 다.

"공자님, 말씀하십시오. 마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도룡이 말했다.

"최근에 이곳저곳을 돌며 탐문을 해 보았는데, 무언가 께름칙한 기분이 듭니다. 전방의 군국대사에 관한 일은 아직 관보로도 나오지 않았는데,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면주로 연통을 보낸 놈도 정보에 빠른 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빨리 전해졌을까요.....?"

완곡하게 말했지만 명란은 단박에 알아들었다. 다시 생각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명란은 놀란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나리가 소문의 한가운데에 있었던지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어요.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군요!"

그녀 역시 패전 소식의 출처를 의심한 적은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고대 사회에서 정보의 전달은 한계가 있었고 그 와중에 헛소문은 늘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전쟁의 경우, 설사 전방에서 대군이 크게 패전했다 해도 어느 정도 쉬쉬하는 게 맞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은 소문에 어찌 이리 떠들썩해졌단 말인가?!

"공자님의 뜻은.....?"

명란이 망설이며 말했다. 도룡이 말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성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오늘 아침 유대인께 듣기로는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 경성으로 온 사람들이 꽤 있는데 대다수의 신원이 불분명하다 합니다. 우선 부인의 안위가 중요하니 장원에서 무공을 익힌 장정을 몇 명 데려와 후부를 호위토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란이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비는 약했으나 바람은 세찼으니 -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다

젊은 남성 70만~80만, 여성과 결혼 힘들 것



요즘 출산을 앞둔 부부들 사이에선 아기 성별 공개 파티가 유행이다. 성별 관련 힌트를 풍선이나 케이크 안에 넣어두고 가족, 친구들을 불러 맞혀 보게 하는 이벤트다. 참석자들이 풍선을 터뜨려 분홍색 꽃가루가 나오면 딸, 자른 케이크의 단면이 파란색이면 아들을 뜻한다. 미국, 유럽에서 보편화된 '젠더 리빌 파티(Gender Reveal Party)'가 수입된 것인데 종주국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 예비 부모들이 산부인과에서 받은 성별 확인서를 열어보지 않고 있다가 친지들과 파티를 열어 깜짝 개봉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확산되는 건 아기 한 명 한 명이 귀해져 성별에 상관없이 출산을 축하해 주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비 불균형 국가란 오명을 벗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여아 100명당 남아 105~107명이 태어나는 게 생물학적 정상 범주인데 이 수치가 1985년 110, 1990년대 116까지 치솟았다. 2000년대 들어 110으로 떨어졌다가 2010년쯤 정상으로 돌아왔다. 30년간 이어진 '남초 출산'이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연구한 논문이 8일 학술저널 '컨버세이션'에 실렸다. 저자인 미국 텍사스A&M대 더들리 포스턴 교수는 1980~2010년 한국에서 태어난 남성 중 70만~80만 명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성 한 명이 평균 6명을 낳던 1960년대에는 남아 선호가 더 뚜렷했음에도 성비가 균형을 유지했다. 문제는 1980년대 들어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남아 선호가 교정되는 속도는 이보다 더뎠던 데 있다. 1, 2명만 낳을 거라면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 산아 제한 정책을 폈던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이유로 결혼 적령기 남초 현상이 심각하다. 중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3400만 명이 많고, 인도에선 3700만 명이 많다.

▷넘치는 독신남은 사회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학계에선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 결과 중국에서 남자 성비가 1% 오르면 폭력 · 절도 범죄가 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1인 가구여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노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복지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방일수록 남초가 심하다 보니 남성들이 연애 · 결혼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중국에선 원치 않게 독신으로 남겨진 남성들을 가리켜 '수동적 독신'이라고 칭한다. 이들 간에 신부 모시기 경쟁이 격해지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이 15년 새 100배나 뛰었다. 요즘은 3000만~4000만 원이 예사라고 한다. 아들 쪽 부모들의 물량 공세로 '결혼 군비 경쟁'이란 말까지 생겼다. 저출산 늪에 빠진 우리나라에서도 2030세대의 남초는 남성들이 결혼에 기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2024년 1월 19일 [12.9] 금요일

유정걸은 형명 출신의 뛰어난 인재였다. 요며칠 경성에 온갖 부류의 사람이 몰려들고 상황에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던 유정걸은 만랑 모자를 데려가자마자 각각 다른 길을 통해 경성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이튿날 밤, 유 부인이 황급히 가마를 타고 와서 미안하다면서 말하길, 글쎄 창이가 납치됐다는 것이다. 명란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나리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군요. 정말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격이지요!"

유 부인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말투에는 촉 지방의 사투리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몸에 걸친 적갈색 바탕에 은사로 호리병을 수놓은 배자 옷자락을 계속해서 비벼 댔다.

"어제 나리가 그 여인을 내쫓으면서 성문 밖에 이르러 아주 단단히 엄포를 놓았답니다. 또다시 와서 귀찮게 굴면 무조건 변방으로 보내 노역을 시킬 거라고요! 그 여인은 연신 알겠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곧장 몸을 돌려 도망쳤고요."

유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사실 나리는 이 정도까지 했으니 그 여인에게도 제대로 먹혀서 다 해결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명란이 손사래를 쳤다. 정식으로 혼례도 치르지 않은 사이에 만랑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아무리 죽네 사네 매달려도 웃음거리만 될 뿐이었다. 지금 고정엽과 후부에게 신경 쓰이는 건 그 어린아이였다. 좀 나쁘게 말해서,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창이를 끔찍한 곳에 팔아넘기거나 도적질을 시킨다면, 그거야말로 엄청난 화근이 될 수 있었다. 명란이 다급히 말했다.

"창이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유 부인이 손수건으로 이마를 누르며 땀을 닦았다.

"그 아이를 보살펴줄 유모를 구하느라 반나절 정도 늦게 성에서 나갔지요. 그런데 성에서 십팔리쯤 떨어진 봉운산 끝자락을 지나는 길에 갑자기 복면을 한 강도 무리가 튀어나와 덮쳤다지 뭡니까. 양쪽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사이에 줄곧 뒤에 숨어 있던 여강도가 갑자기 말을 타고 가마 근처로 달려오더니, 유모를 몽둥이로 때려 쓰러뜨리고는 애를 안아 올려 말에 태우고 달아났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서 호송하던 사람들이 강도들 여럿을 그 자리에서 해치우고 목숨이 붙어 있던 두 명을 고문한 후에야 그들이 어느 패거리인지 알게 됐지요. 돈을 받고 사람을 납치하는 놈들이랍니다. 일행이 관복을 입고 있지 않아서 그저 평범한 가복인 줄 알고 놈들이 그렇게 겁도 없이 덤볐던 게지요."

명란은 잠시 멍해졌다. 그 여강도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솔직히 명란은 여부에서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볼품없는 여인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오히려 자신이 그녀를 과소평가한 거였다. 노래와 연기는 물론, 무예까지 뛰어날 줄이야. 이번에 만났을 때 매사에 조심스러운 최씨 어멈이 그녀의 몸을 수색하고 묶어 놓았기에 망정이지, 만랑이 갑자기 폭주해서 난동을 부리기라도 했다면 자신도 봉변을 당했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다시 물었다.

"누구의 지시로 벌인 일인지 유대인께서 알아내셨나요?"

유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모습이 나이 들고 거칠어 보였다.

"물어봤지요. 개중에 목숨이 붙어 있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고했습니다. 시체 중에 일을 부탁한 여인의 오라비가 있었다고요!"

오토바이 심부름 센터

시간과 비용절약 ~ 인원 절감 효과까지 ~

과테 시내 Z.1~Z.15 Q40 / Z.16~Z.18 Q60
Villa Nueva, San Juan Sacatepequez, 엘살바도르길 Q70
Amatitlan Q90, Palin & Chimaltenango Q120



❖ 이 요금은 시내 Z.9 & Z.10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시외 위성도시 간 요금은 위치에 따라 개별 합의해야 함.

1kg 이상은 추가 요금 부과 / ☎ 3484-5750

과테말라 한인 교회 연합

(가나다 순)

다 메 섹 선 교 교 회



금요성경공부 : 오후 8시

주일 낮 예배 : 오전 10시40분

기도모임 : 화요일 저녁 8시

21Calle 13-15 Z.11 Col.mariscal

담임목사 김기택 전화 : 2473-3968, 5511-65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과 테 말 라 사랑의교회



주일 1부예배 :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 오전11시

금요 기도회 : (금) 오후 8시30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 (토)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 (주일) 오후 1시

새벽예배 : (월-금) 새벽 5시

주소: 17Ave 28-92 Zona 12

담임목사 이정로 교회 : 2293-2100

대한예수교 장 로 회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 오전 10시 30분

주일학교 : 오전 9시 30분

새벽예배 : 오전 5시/월~금

주소: 18 Calle 5-92 Col.Mariscal Z.11

담임목사 박필종 목사 : 5705-6646

제 일 교 회



주일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8시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주일(2, 4주) 오후 1시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시

전교인기도회: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토요 공부방: 토요일 오전 9:30~12시

주소: 0 Ave 9-41 Z.9

담임목사 이병성 교회 : 2362-8565

과 테 말 라 미주한인장로회 주님의교회



주일예배(오전 9시 30분)

수요·금요 기도회(오후 8시)

새벽기도회(오전 6시) 월~토요일

** 실시간 라이브 톡으로 방송설교 **

Tel: 3029-1722 카톡ID: open21u

주소: 44 Calle 3-42 Z.12 Monte Maria 1

담임목사 양철호 E-MAIL: open21me@gmail.com

GUATEMALA CITY 평강교회 IGLESIA de LA PAZ

www.gupc.org



- 주일, 오전 8시(1부), 오전 11시(2부)
- 주일, 어린이 예배 - 오전 11시
- 수요, 저녁예배 - 오후 8시
- 금요(1,3주) 기도와 찬양 - 오후 8시
- 토요, 새벽기도회 - 오전 5:30

11Ave. 29-46 Zona12. El Bosque

USAC 입구 ☎ 2476-5772, 4677-4399

(최유찬 목사)

재미한인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하비스트교회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

-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주일학교 : 오후 1시
- 수요신앙강좌 :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
- 새벽기도회 : 월~금 5시 30분

담임목사 : 서동오, 연락처 : 4067-1051, 2292-3662

주소 : 4 ave 'a' 14-76 Zona 14 (웨이즈 : 하비스트교회)

대한예수교 장 로 회 과테말라한인교회



2024년 표어 :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주일 1부 : 오전 9시 / 주일 2부 : 오전 11시

요셉학교(13~18세) : 오전 10시 30분

야곱(9~12세)/다니엘(5~8세) : 오전 11시

꿈의(2~4세)/씨앗(0~24개월) : 오전 11시

금요기도회 : 저녁 8시(2~5주)

토요월삭기도회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새벽 6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월~금)

담임목사 김디모데

37Ave 3-36 Colonia El Rodeo Zona 7

교회 : 2433-4533, 2432-1449

읽는 방향


콩쥐!
네 어년!
오래게 읽님선생에
다녀오는 동안
이 자갑밭을 다 갈고
물독에 물도 계속
채워 농도록 해!!


늘아올 때까지
일여 돼 있지 않으면
알아서 해!!
에휴
어!


이 땅거지 오미어
계전 독요로
어떻게 이 많은
일을...흑~!
털썩
콩쥐님~
계정대세요
~.


앗!? 너희들은
누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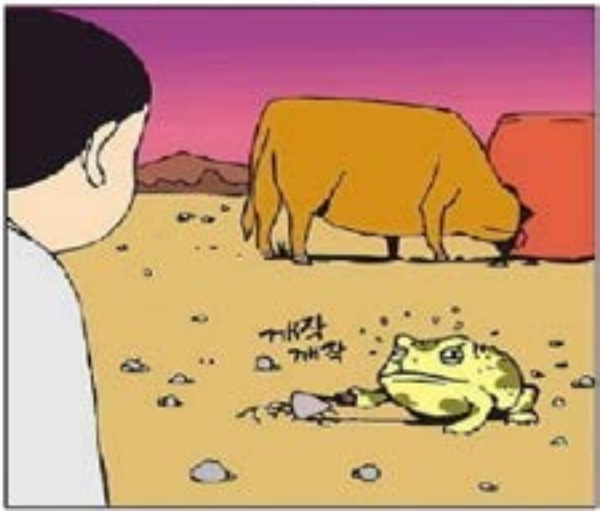

제희는 콩쥐님을
도우러 온 황소와
두꺼비랍니다.
말으신 일은
제희가 다 알아서
해 농을게요.


어...
두껍여,
항소이...
정말
고맙구나
...!


그럼 부탁해
~!!
예~
늦지 않게
다녀 오세요~!




휴우~,
다행히 제 시간에
돌아왔구나~!
얘들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


개갹
개갹

2024년 1월 19일 [12.9] 금요일

오늘의 운세



어려운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게 마련이다. 72년생 친한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다툴 수 있으니 주의하라. 60년생 영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어려운 난관에 취해 있고, 운전시에는 운전 주의. 한 눈 팔다 사고 난다. 48년생 이사를 가려 하는데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어렵고 건강 주의하라.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73년생 갑자기 심한 두통이 일어나니 주의하고 친구들과 놀러 만 다니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 61년생 유학 가는 것이 비용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 재고하라. 49년생 해외 이민을 가려 하는데 지체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말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라. 74년생 동료와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지 말고 절충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62년생 형제간에 우애가 남다르니 집안끼리 나들이하면 좋을 수. 50년생 동업자와 다툼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니 주의하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의 길에 첫발을 내딛는 구나. 75년생 마음먹은 일을 실행으로 옮겨라.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63년생 함정에 빠지나 조금만 기다려라. 전화위복. 승진이 보인다.51년생 다툴 일이 생긴다. 물러나지 말고 맞서라. 당신이 승리한다.



오랜 산고 끝에 새생명이 탄생하는 하루다. 고통을 무서워하지 마라. 76년생 부부,연인간의 애정문제에서 극적인 타결을 본다. 64년생 꼴 보기 싫은 상대와 동행하게 된다. 무조건 받아 주어라. 52년생 재물로 소송이 생길 것 같다. 해결은 시간이 좀 걸리겠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싱글의 경우 돈은 나가나 애인과 함께이니 즐겁다. 애인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다. 65년생 겉으로는 이익이 있는 것 같으나 손해를 보게 되니 주의하라. 53년생 사업은 성공적이나 가정불화가 있으니 가정에 신경 써라.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기 마련. 실직자는 취직운이 있다. 78년생 너무 기쁜 나머지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 감정을 절제할 필요. 66년생 실직자는 집에만 있지 말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취직이 된다. 54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오지만 조만간 다시 나가니 모아 둬라.



짝잃은 기러기가 천생연분을 만난다. 울타리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79년생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등산, 수영 등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좋다. 67년생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질책 받았다고 실망 마라. 너의 행동은 떳떳하다. 55년생 새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좋은 직장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온다.



교통사고 수가 있다. 자가 운전자는 대중 교통 이용. 음주운전 절대 금물. 학생이라면 공부 안한 벌이 주어질 것이며 배탈 조심. 68년생 주부는 남편이 박봉이라도 벌어다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라. 56년생 옷을 구입하는 데 바가지 쓸 수 있다. 알뜰한 쇼핑 계획이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다가는 다 놓치기 쉽다. 81년생 열심히 최선을 다 해야만 성공한다. 욕심을 내면 아주 불리해진다. 69년생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만 성공한다. 욕심을 내면 아주 불리해진다. 57년생 사업이 저조하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더욱 어려워지니 현실 안주하라.건강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편히 하라. 싱글은 싫다고 떠나는 사람 생각 말고 좋다고 따라오는 사람 잡아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여권, 비자 발급이 지체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긴다. 58년생 사업에 진전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



손해 볼 일은 끝나고 이익만이 남아 있는 하루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 싱글은 여행에서 좋은 이성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 59년생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므로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된다. 47년생 운영하는 것이 크게 성공하며, 투자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복사기 임대

잉크빠이스

- 문의전화 -
2439-3692
4234-0057

KOH
clinica dental

¿이가 아프십니까?

En Koh Clínica Dental 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치주질환 치료, 신경치료, 치아 발치



¡더 이상 고통은 NO!

교정, 보철, 미백
성인 및 어린이 스케일링
수술, 임플란트

Dr. Fernando Azmitia
Calzado Roosevelt 35-98 zona 7, Hospital de Día Itzamná, clínica #5
2485-6718 / 2485-6719 / 3148-1105
Búscanos en redes sociales
Facebook: @KohClinicaDental Instagram: @kohclinica

레스토랑 Rio 차림표

1인용 압력솥밥

★ 백미솥밥, 현미잡곡
★ 곤드레 솥밥, 영양솥밥
★ 시래기 솥밥, 누룽지
★ 최고급 불판 숯불구이

스페셜 메뉴

★ 얼큰 육 계 장
★ 얼큰 홍합 짬뽕
★ 싱싱한 "활어회"

아침식사 가능 7:30 부터 영업 / 뷔페예약 & 행사음식 예약 가능

예약문의 : 사일오일-칠삼육팔 , 칠칠구일-일육팔팔, 사일오일-칠삼구사

PALIN-00, CARRETERA A PALIN KM 39.37
CA-9 SUR A, MA-04B Palin, Escuintla

waze "El encuentro palin"

태평양 물류

모집부문
- 마케팅 및 영업
- 매장관리
- 무역 및 관리

지원자격
- 경력 : 경력 무관
- 학력 : 고졸이상
- 언어 : 영어/스페인어 능력 우수자 우대

근무조건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 지역 : 과테말라 시티

전형절차

서류심사 → 1차면접 → 2차면접 → 최종합격

접수방법
- 이메일 : 자유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하여 메일로 발송 (국문/영문)
  recruitment@paloandco.com (메일 제목:이력서_희망직무_이름)

난이도 : 쉬운 단계

3		8			6	2		
		1	8		9		4	3
		9		3		1		
		7	2			3		4
		5	1			8		
6		3		8	7	9		
		2		7		4		
8	9		3		1	6		
		6	9			5		1

난이도 : 어려운 단계

		9		4		7		
	2				5	4		
	1				7			
	5	2			6		9	
		7		2		6		
	3					2	5	
			3				8	
		8	6				2	
		1		8		9		

오늘의 스도쿠 정답

쉬운단계정답

1	8	5	2	4	9	6	3	7
7	2	6	1	5	3	9	4	8
9	3	4	8	7	6	5	2	1
2	5	9	7	8	4	3	1	6
6	7	8	9	3	1	2	5	4
4	1	3	5	6	2	7	8	9
8	6	1	4	9	5	7	3	2
5	4	7	3	2	8	1	9	6
3	9	2	6	1	7	8	4	5

어려운단계정답

3	6	1	4	8	2	9	7	5
9	7	8	6	5	1	3	2	4
2	4	5	3	7	9	1	8	6
8	3	6	9	1	4	2	5	7
1	9	7	5	2	8	6	4	3
4	5	2	7	3	6	8	9	1
6	1	4	2	9	7	5	3	8
7	2	3	8	6	5	4	1	9
5	8	9	1	4	3	7	6	2

유머

초보 누드모델

한 교수의 권유로 처음 미대 수업에 나가게 된 초보 누드모델. 강의실에 들어서자 앞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다. 모델은 '여기 앉으라는 건가 보다' 생각하며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둘씩 들어오는 학생들이 키득대는 게 아닌가. 당황한 모델은 몸에 뭐라도 묻었나 싶어 두리번거렸다.

때마침 들어온 교수가 하는 말.
"여기는 정물화반이에요. 의자를 그리는 중이었는데…."

돌팔이 의사와 환자

환자:"기분이 엉망입니다."
의사:"음주량을 줄이세요."
환자:"술은 아예 안 마시는데요."
의사:"그럼 담배를 줄이시고…."
환자:"담배는 안 피웁니다."
의사:"그럼 여자를 좀 멀리하세요."
환자:"여자 곁에 가본 적도 없어요."
의사:"그렇다면 술 좀 마시고, 담배도 해보고, 여자도 한둘 사귀어 봐요."

제 93 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요강

■ 실시안내

◦ 원서 접수 기간 및 시간 :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 2월 6일 화요일
(평일 09:00-12:00, 14:00-16:00 토,일 제외)

◦ 원서 접수 장소 :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Tel : 502-2382-4051~4

5 Avenida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Ciudad de Guatemala

◦ 원서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응시 수수료 : Topik I Q.350 / Topik II Q.400

◦ 원서 접수 시 준비물 : **증명사진(정면응시, 균일한 배경)** 2 매 (3cm*4cm), 응시 수수료Q, 여권 또는 DPI (사진과 생년월일, 영문성명이 포함, 유효기간 이내)

◦ 원서 접수 문의 : 4770-7013 (whatsapp)

◦ 성적 발표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www.topik.go.kr)에서 05월 30일 이후 무료 출력

■ 시험 시행

◦ 시험일자 :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 시험장소 : 산 카를로스 국립대학교 언어연수원(S13)

Edificio S13 Campus Universitario zona 12, Ciudad Guatemala (waze – 세종학당)

◦ 입실시간 : 매 교시 30 분 전 (입실 시간 이후 입실 불가)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분)
TOPIK Ⅰ	1교시	듣기 / 읽기	**09:10**	**09:40**	**11:20**	100
TOPIK Ⅱ	1교시	듣기 /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 시험 안내

◦ 입실 시간: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 응시자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 유효 신분증: 여권, ID카드 등
(사진, 생년월일, 영문성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신분증)

◦ 주의사항 : 음료 및 간식은 제공하지 않음 / 핸드폰 등 전자통신기기는 시험실 반입 금지

- 자세한 시험 안내, 변동사항, 응시자 유의 사항은 접수 시 별도 안내 드립니다. -

주관 :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시행 : 산 카를로스 국립 대학교 언어연수원 한국어과

소나 7 아람 옆
로데오마트2호점
22215364
아주편리한 위치

한인교회 길목
로데오마트본점
24339015
총 본점 물건이 가장 많아요

소나 14 바로옆
로데오마트3호점
23670137
아람입점마트

맛있는 쌀
12월30일 입하





좋은 품질의 저렴한 햅쌀을 로데오에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햅쌀로
시작하는 2024년
새해에도 건강해용

